경남교육 2015-018-1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Dream Maker 꿈나르미 경남교육

역사 속 인물 탐구를 통한

나의 꿈길 찾기

스토리텔링으로 알아보는 역사 속 인물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현실형(Realistic) / 5

◇ **문익점** : 특용작물재배자, 농부
◇ **김정호** : 지리학자
◇ **정약용** : 도시계획 및 설계자
◇ **손기정** : 운동선수
◇ **박문수** : 검사, 경찰관

탐구형(Investigative) / 17

◇ **허　준** : 의사, 한의사
◇ **장영실** : 발명가, 천문학자
◇ **석주명** : 생물학자
◇ **이　황** : 교수, 학자
◇ **전형필** : 학예사, 문화재수집가

예술형(Artistic) / 29

◇ **김홍도** : 화가
◇ **윤동주** : 시인
◇ **우　륵** : 음악가
◇ **최승희** : 무용가, 댄서
◇ **박지원** : 소설가

사회형(Social) / 41

◇ **김만덕 :** 구호활동가, 상인
◇ **안창호 :** 교사, 교육자, 독립운동가
◇ **김대건 :** 신부, 종교인
◇ **원　효 :** 스님, 철학자
◇ **지석영 :** 약사

진취형(Enterprising) / 53

◇ **김　구 :** 대통령,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 **이순신 :** 군인, 해군장교
◇ **임상옥 :** 상인
◇ **장보고 :** 국제무역상, 군인
◇ **서　희 :** 외교관

관습형(Conventional) / 65

◇ **주시경 :** 언어학자, 출판물편집자
◇ **황　희 :** 행정공무원
◇ **신채호 :** 역사학자, 고고학자
◇ **정몽주 :** 국무총리, 장관
◇ **규장각인물들 :** 사서, 출판물편집자

현 실 형

현실형 (Realistic)

◇ **문익점 :** 특용작물재배자, 농부
◇ **김정호 :** 지리학자
◇ **정약용 :** 도시계획 및 설계자
◇ **손기정 :** 운동선수
◇ **박문수 :** 검사, 경찰관

<현실형>

문익점

특용작물재배자
농부

일생

- 고려 말,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으며, 1363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붓대 속에 목화씨를 감추어 가져와 재배하였습니다.
- 그러나 문익점이 심은 목화씨는 모두 죽고, 장인인 정천익이 심은 것만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그 뒤 목화씨를 빼는 기구인 씨아와 목화솜에서 실을 뽑는 물레가 만들어져 솜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화 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들어 덮거나 솜(면)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하다!

문익점은 고려 말인 1329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어요. 문익점의 아버지는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던 선비였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시험에 붙은 그는, 여러 관직을 거쳐 사간원 좌정언에 올랐어요. 그때, 고려는 우리나라의 특산물과 젊은 처녀들을 해마다 원나라에 공물로 보내야 했어요.

공민왕은 '가뜩이나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백성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원나라에 공물을 보낼 수는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익점을 원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죠.

그러나 원에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은 공민왕 제거 음모에 연루되어 중국에서 뜻하지 않은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목화를 발견하다!

문익점이 도착한 곳은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마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익점은 하얀 벌판을 보았답니다.

"이게 뭐지? 하얗고, 부드럽고, 마치 솜사탕 같은 꽃송이들은 뭐지?"

문익점은 그 꽃송이를 따서 요리조리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고려에서는 볼 수도 없는 솜옷을 일반 백성이나 귀족 모두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화에서 실을 뽑아 솜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따뜻하고 질기고 깨끗한 것이 목화라는 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문익점은 '저 목화씨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가야겠다.' 결심을 하였어요.

목화씨를 가져갈 방법을 생각하다!

그때까지 고려에는 솜으로 만든 옷이 없었어요. 그 당시 고려에서는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비단)옷과 마로 만든 삼베옷을 주로 입었어요. 그런데 명주옷은 귀하고 비싼 옷이어서 귀족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삼베옷을 주로 입었어요. 삼베옷은 겨울에 입기에는 매우 얇아서 백성들은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며 지내는 형편이었어요.

문익점은 가난과 추위로 고통 받는 고려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뜻을 가슴깊이 품었어요. 그러나 당시 원나라에서는 목화씨와 그 재배 방법이 나라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목화씨를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문익점은 글을 쓰기 위해 붓 뚜껑을 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선비가 붓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니, 붓 뚜껑에 씨앗을 넣어가자."

1363년 귀양이 풀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문익점은 관리들의 감시를 피해 붓 뚜껑 속에다 목화씨를 숨겨 갖고 나오는 데 성공하였어요.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예문관 재학의 벼슬을 받았지만 벼슬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을 성취하고자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목화 1개가 천신만고 끝에 싹을 틔우다!

고향 산청으로 간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을 찾아갔어요.

"한 곳에 모두 심으면 실패할 수 있으니, 나눠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익점은 중국에서 어렵게 가져온 목화씨 10개 중에 다섯 개는 자신의 밭에 심고 나머지 다섯 개는 그의 장인인 정천익에게 주어 심게 했어요.

그의 염려는 현실로 드러났어요. 문익점이 심은 씨는 모두 썩어서 죽은 거죠.

"이보게! 싹이 돋았네. 싹이 돋았어!" 다행히 정천익이 심은 한 개만 겨우 싹을 틔웠던 것이에요. 두 사람은 정성껏 그 싹을 키웠답니다. 초가을 드디어 한 개의 목화가 피어올랐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싹을 얻었고 이를 해마다 늘려 심었어요.

"씨앗이 백 개도 넘는군요! 목화를 심을 수 있게 됐어요!" 3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목화 재배에 성공하여 전국에 목화씨를 퍼지게 하였어요. 그런데 목화 재배에는 성공했지만, 목화에서 씨를 빼고 실을 뽑아내는 법을 알 수 없었답니다.

솜옷과 솜이불로 따뜻하게 지내다!

그러던 중 때마침 정천익의 집에 머무르던 원에서 온 승려로부터 목화에서 씨를 뽑는 법과 실을 뽑을 수 있는 물레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비로소 이때부터 무명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백성들은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었어요. 포근한 솜옷과 솜이불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실형>

김정호

지리학자

일생

김정호는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입니다. 19세기 조선의 국토 정보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1834년(순조 34년)에 지도 《동여도지》를 제1차 편찬하였고, 그 부도에 해당하는 지도 〈청구도〉도 펴내었습니다. 그 뒤 1851년(철종 2년) 무렵에 지도 《여도비지》를 편찬하였고, 1856년(철종 7년) 무렵에는 지도 〈동여도〉를 편찬하였습니다.

1861년(철종 12년)에는 앞서 만든 〈청구도〉와 〈동여도〉를 보완하여 〈대동여지도〉를 편찬한 뒤 《대동지지》를 편찬하며 살다가 그해에 남대문 밖 약현에서 죽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고난을 딛고

세상을 그릴 지도를 꿈꾸다!

김정호는 약 1800년경 황해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김정호의 아버지는 종이, 붓, 먹을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안 가 본 곳이 거의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도란 세상을 담을 그림이란다. 지도를 보면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을 다 볼 수 있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호는 항상 생각했어요. "바다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산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지? 우리 동네의 시작과 끝은 어딜까?"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마을의 지리를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였어요.

김정호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당에 보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김정호를 놀려 댔어요.

"가난뱅이 주제에, 공부는 해서 뭐 하게?"

그러나 '최한기'라는 아이만은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둘은 금세 친해졌답니다.

정확한 지도를 그릴 결심하다!

어느 날, 최한기의 집이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한양으로 올라온 최한기는 서양에서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을 그때그때 김정호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호는 규장각에 많은 지도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후 그는 매일 규장각으로 가서 관리에게 지도를 보여주기를 청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 때 그의 친구인 최한기의 도움으로 규장각에

있는 지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김정호는 기쁜 마음으로 규장각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실제 현장을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크게 실망하였답니다.

"아니, 규장각에서 만든 지도조차 틀리다니! 제 나라의 올바른 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좋아, 내가 내 손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 거야!"

김정호는 자신이 직접 지도를 만들 것을 결심하고, 나라 곳곳을 둘러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다!

김정호는 드디어 지도를 완성하였어요. 그 지도가 바로 2첩의 지도인 '청구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음~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지를 느끼게 해야 해."

김정호는 또 다시 조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새 지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구도를 만든 지 27년이 지난 1861년에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답니다.

'대동여지도'에는 강은 굽은 선, 길은 곧은 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역(말을 마련하던 곳)이나 창고의 위치를 표시했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강과 다닐 수 없는 강도 나누어 표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리마다 점을 찍어, 한눈에 거리를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조선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에요. 3년 뒤에는 '대동지지'라는 32권짜리 지리책도 만들었어요.

대동여지도로, 억울하게 죽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흥선 대원군에게 바쳤어요. 하지만 그의 정확하고도 세세한 지도를 본 대원군은 크게 놀라며 말했어요.

"서양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 갖은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때, 너는 조선의 지도를 만들어 남에게 우리 지형의 비밀을 알리려고 했다.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가두고, 그가 만든 지도를 모조리 불살라 없애 버려라!"

"아~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저리 무지해서야…… 나라가 어지러울 땐 적을 막고, 평화로울 땐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이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들은 왜 모른단 말인가!"

그는 결국 1867년, 나라의 비밀을 밝혔다는 죄를 쓰고 억울하게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대동여지도는 지금도 김정호의 이름과 함께 문화유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답니다.

<현실형>

정약용

도시계획
설계가

일생

1762~1836년.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호는 다산·삼미·여유당 등으로 다양하며, 유형원과 이익 등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집대성하였습니다.

유학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에도 밝아 수원 화성을 쌓을 때는 거중기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도 탄압에 걸려 강진으로 귀양을 가 18년 동안 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귀양을 가 있는 동안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비롯하여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시를 쓰다!

정약용은 1762년 음력 6월 16일에 현재 남양주에서 태어났어요. 아홉 살이 되던 해,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약용은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큰 소리로 책을 읽거나 글을 썼지요.

일곱 살 때에 '산'이라는 시를 지었고, 열 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지은 시를 모아 〈삼미자집이〉라는 책을 만들었답니다.

책 한권이 인생을 바꾸다!

1776년 결혼을 한 정약용은 더욱 의젓해졌어요.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신하 나라가 아니었구나.” 서양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듣고,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요.

“우리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공부를 해야겠어.”

이때부터 정약용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과 기술에 마음을 쏟았답니다. 물론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정약용은 스물두 살이 되자 소과에 붙었고, 스물여덟 살에는 대과에 일등으로 합격했답니다.

정조는 재능 있는 사람을 키우는 데 힘쓴 임금님이었어요.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보려고 자주 시험을 보았어요. 정약용은 그 때마다 성적이 좋아 늘 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서른한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조 임금의 명을 받들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묘라고,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작은 집고 살아야 했어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중, 한 신하가 임금님의 편지를 들고 왔어요.

"수원에 성을 지으려고 하니 설계도를 만들어 올려라!"

임금님은 수원에 하루빨리 성을 짓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인 사도 세자의 무덤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곳인 수원에서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임금님이 계실 곳이니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여러 날을 고민하여 설계도를 만들어 올리며 정약용은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수원 화성에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전하의 뜻이 담겨 있사옵니다. 그러니 지을 때부터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성 쌓는 일을 하는 동안 백성들에게 일한 돈을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나라에 큰 공사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억지로 불려 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길어질수록 임금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 갔지요. 정조 임금은 정약용의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도시를 만들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성을 쌓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커다란 돌에 깔려 다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성을 쌓을 수 있을까?'

정약용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거중기'라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거중기는 도르래의 힘으로 커다란 돌멩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편리한 기계였어요. 거중기를 쓰자 일도 한결 빨라지고, 다치는 사람도 줄어들었지요. 그 덕분에 10년이 걸려도 쌓기 어렵다는 성을 2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장하오! 그대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내겠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귀양을 가서 <목민심서>를 쓰다.

임금님은 젊은 학자들은 몹시 아꼈고, 개혁에도 힘썼어요. 임금님이 정약용을 크게 믿고 의지하자, 개혁에 반대하던 무리들이 정약용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틈을 타서 개혁에 반대하던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정약용 무리는 서양의 종교를 퍼뜨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린 순조 임금을 부추겨 젊은 학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어요. 결국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양을 가야 했어요.

강진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백성들에게 도움 되는 책을 썼어요. 오로지 백성과 나라를 걱정했던 그는 일흔다섯 살에 고향에 돌아와 죽을 때까지 계속 책을 썼답니다.

<현실형>

손기정

운동선수

일생

평북 신의주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달리며 자라는 소년'으로 불리며 육상경기의 소질을 보였던 그가 정식으로 육상경기에 입문한 것은 양정고보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곧 마라톤을 비롯한 장거리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각종 경기회에서 우승, 신기록 수립의 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로 하여금 마라톤 세계 제패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1936년 8월 9일 오후 베를린의 제11회 올림픽 마라톤 레이스에서 2시간 29분 19초 2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56명의 세계 강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달리기가 좋았던 소년!

손기정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어요. 아홉 살 손기정은 달리기가 재밌었어요. 오죽하면 얼음판에서도 달리고 싶어서 스케이트를 가지고 싶었죠. 그러나 스케이트는 비싸서 가난한 손기정의 집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쳇! 스케이트 없으면 어때. 맨 땅에서는 내 다리가 훨씬 빠른 걸'

어머니는 달리는 것을 반대했지만, 손기정의 열정에 그만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 달리기가 좋으면 뛰려무나. 그 대신 어떤 고통도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그 때부터 손기정은 더 부지런히 달리게 되었어요.

장사를 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다!

1926년, 초봄에 해일이 일어나 신의주 일대가 바닷물에 잠겼어요. 손기정은 학업을 중단하고 장사에 나섰어요. 14세의 나이로 철따라 물건을 바꿔가며, 참외장사, 각설탕 장사, 군밤장사 등을 했어요. 덕분에 2학기부터 약죽보통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었으나, 6학년 졸업을 할 때까지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장사해야 하였어요. 손기정은 집에서 학교까지 약 2킬로미터의 자갈길을 항상 뛰어다녔답니다.

졸업을 앞두고는 신의주상업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키우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을 도와야 했던 손기정은 학교가 아니라 인쇄소에 들어갔어요. 매달 쌀 두가마니를 살 수 있는 월급을 준다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나는 달린다! 반드시 달린다!'

마라톤의 매력에 빠지다!

1931년 11월, 손기정은 평안북도 대표로 조선신궁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을 뽑는다니 설레었죠. 50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하여 2등을 했어요. 손기정은 실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때 마라톤 경기를 보았어요.

"마라톤이 42.195km를 뛴다고? 그렇게나 먼 거리를 뛴단 말이야?"

처음 본 마라톤은 아주 근사했어요. 이왕이면 가장 멀리 뛰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1932년 봄에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경성과 영등포 사이를 달리는 이 대회를 준비하려고 손기정은 하루 전에 경성에 도착해서 코스를 살피러 나갔지만, 낯선 도시에 길을 잃고 헤매다 돌아왔어요.

대회 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니 그냥 제일 빨리 뛰는 선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손기정은 2등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뛴다고 다가 아니야. 제대로 배우면서 훈련을 해야 해!'

조선 최고가 되다!

손기정은 경성에 와서 양정고등보통학교 육상부에 입학하였어요. 매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는 명치신궁대회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어요. 하지만, 기권을 하고 말았답니다. '1등은커녕 제대로 달리지 못하다니…….' 손기정은 스스로 실망했어요.

"힘내자!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달리기를 선택했어. 이 길로 최고가 되자!"

손기정은 달리는 기본기야 워낙 탄탄하니 먼 거리를 달리는 동안 힘을 나누어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호흡법도 바꾸었어요. 배로 숨을 쉬면 폐에 공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서 오래 달려도 힘이 훨씬 덜 들었어요.

연습 코스를 짜서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정해진 짧은 코스를 뛰고 그 시간을 점검해서 기록을 점점 줄여갔어요. 점점 마라톤을 하기 좋은 몸으로 변해갔답니다.

마침내, 1933년 10월 손기정은 조선신궁대회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기록은 2시간 29분 34초 4! 당시 세계 신기록을 가진 아르헨티나 자발라 선수보다 2분 1초 96이나 빨랐어요.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 업신여겼기 때문이었답니다.

세계 최고가 되다! 하지만 조국의 아픔에 슬퍼하다!

드디어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이 열렸어요. 처절한 사투는 후반의 막바지 코스인 비스마르크 언덕에서 손기정이 앞서 가던 자발라를 추월하면서 결판이 났어요. 이로 인하여 손기정은 마라톤에서 우승하였어요.

'2시간 29분 19초 2!'에 주파해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어요. 이때 손기정과 함께 출전하였던 남승룡이 동메달을 차지하였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관을 머리에 쓴 손기정은 시상대 위에 올라서자,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국기와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죠. 식민지 국민으로서 설움에 눈물이 흘렀답니다.

<현실형>

박문수

검사
경찰관

일생

- 조선시대의 문신. 호는 기은. 1723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고, 병조정랑에 올랐다가 노론의 집권으로 사직되었다.
- 1727년에 사서로 다시 등용되었고, 영남 지방의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군정과 세정에 밝아 당시 국정의 개혁 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습니다.
- 설화로서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행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서에 '탁지정례', '국혼정례' 등이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다!

박문수는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박문수가 태어나면서 집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할아버지인 박대감의 손자 사랑은 지극했어요. 박대감은 저녁마다 어린 문수를 무릎에 앉혀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글도 가르쳐주었죠.

그런데 문수가 여섯 살이 되던 이듬해 봄, 박대감의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그토록 정정하던 박 대감이 자리에 드러누운 것이죠.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도 삼년상을 치르며 시묘를 하다 건강을 해쳐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암행어사가 되다!

지혜로우면서도 인정이 넘쳤던 박문수는 경종 임금 3년 과거에 합격했어요.

“과인은 그대의 뛰어난 문장에 감탄하였다. 내 그대에게 사관의 벼슬을 내리노라!”

경종 임금의 말에 박문수는 사관이 되었어요. 사관이라는 벼슬은 임금의 언행과 신하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는 일을 하는 실로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듬해, 경종 임금이 세상을 뜨고 영조가 즉위하자 박문수는 병조 정랑으로 승진하였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당파 싸움에 휘말려 벼슬을 잃고 물러나야만 했어요.

마침내 3년이 지나자 영조 임금이 박문수를 불렀어요.

“지방의 수령들 중에 백성을 못살게 구는 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대가 과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오라! 또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도록 하라!”

이렇게 박문수는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수령을 벌하는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답니다.

백성을 위하는 암행어사의 주인공이 되다.

박문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암행어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설화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그 중 대표적인 2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강원도 산간 지방에 사는 효부는 생선장수가 왔으나 생선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녀는 생선을 자꾸 만져 비늘과 비린 맛을 손에 묻힌 뒤에 그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지요. 이 국을 맛본 시아버지는 맛있다고 좋아하였으나, 시어머니는 그 손을 간장 항아리에 씻어 온 식구가 1년 내내 생선 맛을 보게 하지 않고, 한 끼에 다 먹게 하였다고 꾸중하며 나가라고 하였어요. 이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그 손을 우물에 씻어 온 동네 사람이 생선 맛을 보게 하지 않았으니, 내쫓아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녀가 울고 있으니까, 남편도 따라 울었어요.

그 때 박 어사가 이곳을 순행하다가 우는 까닭을 물으니, 그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움을 안 박 어사는 강원도 감사에게 진휼미를 나누어 주도록 하고, 그녀에게는 특별 포상을 하였답니다.』

『옛날에 가난한 양반 이 진사가 홀로된 며느리와 살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 혼자 집에 있는데, 젊은 중이 와서 시주하라고 하였지요. 며느리가 문밖으로 나가니, 중은 몸에 지니고 있던 칼로 찌르고 달아났어요. 이 진사가 집에 돌아와 며느리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몸에 박힌 칼을 빼는데, 이웃집 노파가 와서 이를 보고 놀라 뛰쳐나갔어요.

노파는 “이 진사가 며느리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관가에 신고하였어요.

그래서 이 진사는 며느리를 죽인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고을 가까이 오다가 한 중을 만났는데, 수상쩍은 데가 있었어요. 박 어사는 그 중을 수상히 여겨서 함께 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어요. 박 어사가 전에 예쁜 처자를 만나 욕보인 적이 있다고 꾸며서 말하자, 중은 자기도 시주를 얻으러 갔다가 주인 여자를 죽인 일이 있다고 하였어요.

박 어사가 중과 헤어져 관가로 가서 죄수들의 죄목을 살펴보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를 죽인 양반이 있었어요. 박 어사가 보관된 증거품을 살펴보니, 중들이 쓰는 장도칼이었죠. 박 어사는 그 중을 잡아 가두고, 억울한 이 진사를 풀어주었답니다.』

이 외에도 박문수는 어사로서 지방 관리의 행동이나 일 처리에 관한 실상을 조사하고, 이를 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비행이 있는 관리의 관직을 박탈하고, 벌을 내렸어요. 박문수가 백성들의 어려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백성을 돕기 위해 애를 썼음을 알 수 있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다!

많은 설화의 주인공인 박문수는 1755년 소론이 주도한 '나주괘서사건'에 휘말려 그와 관련한 옥사에 연루되어요. 영조는 직접 박문수를 불러 안심시키고 여전한 신임을 보여 주었으나 이후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며 세수도 빗질도 않으며 집에 틀어박혀 살았지요. 이듬해인 1756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영조 임금은 박문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답니다.

탐 구 형

탐구형 (Investigative)

◇ **허　준 :** 의사, 한의사
◇ **장영실 :** 발명가, 천문학자
◇ **석주명 :** 생물학자
◇ **이　황 :** 교수, 학자
◇ **전형필 :** 학예사, 문화재수집가

<탐구형>

허준

의사
한의사

일생

- 선조 때 임금님을 돌보는 내의가 되어 왕실의 진료에 공을 세웠습니다.
- 1590년 광해군의 두창을 고치면서 비로소 남다른 의술을 인정받고, 임진왜란 중 다시 한 번 광해군의 병을 고치면서 동반(東班)에 올라, 신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 1610년(광해군 2)에 허준은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동의보감은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일본과 청나라에서도 간행될 만큼 높이 평가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서자로서 의원을 꿈꾸다.

허준은 서자로 태어났어요. 서자는 양반의 아들이라도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이 차별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허준의 어머니가 발목을 크게 다쳐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의원의 가느다랗고 뾰족한 침과 고약이라는 검은 약을 상처 난데 붙였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어머니의 다리가 감쪽같이 다 나았어요.

'대단하다. 침과 고약으로 아픈 다리를 고칠 수가 있구나!'

허준은 의원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거예요.

마마에 걸린 아이를 구하다!

젊은이가 된 허준은 의원이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 의원의 제자가 되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며, 몸에 좋은 풀과 독이 있는 풀을 가려내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진찰하는 법, 침놓는 법 등을 하나하나 배우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허준의 집으로 허겁지겁 찾아왔어요.

"살려 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의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가득했어요. 허준은 그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아이는 마마라고 불렸던 천연두에 걸렸던 거였어요. 마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 이었답니다. 허준은 아이를 살렸고, 이 사실은 곧 널리 알려졌어요.

유희춘의 도움으로 내의원이 되다!

하루는 높은 벼슬의 유희춘이 허준을 불렀어요.

"내 몸에 난 종기를 없애주게. 이제까지 의원이 수없이 다녀갔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며칠 뒤, 허준은 오랫동안 유희춘을 괴롭히던 종기를 말끔히 없앴답니다.

유희춘은 기뻐하며, 내의원에 일할 것을 추천했어요. 내의원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이 모인 곳으로 임금님과 그 가족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답니다.

내의원이 된 허준은 밤새도록 의술 책을 읽으며, 가난한 백성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혜민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오히려 더 기쁘구나!' 허준은 정성껏 환자를 치료하며, 백성들은 그런 허준을 더욱 믿고 따랐어요.

서자로서 벼슬에 오르다!

그러던 중 궁궐에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 광해군이 마마에 걸린 거예요.

"왕자의 병을 고칠 사람이 없는가?" 의관들은 머리를 숙인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때, 허준이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했어요. 허준은 당황하지 않고, 왕자를 보살폈어요. 그러자 기적 같이 왕자는 마마를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왕자를 살렸으니, 정3품 벼슬을 내리노라!"

선조의 말에 허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벼슬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임금님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의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내의원에 명령을 내렸어요.

"중국에서 들여 온 의술 책은 맞지 않으니 우리나라에 맞는 의술 책을 새로 만들도록 하라."

허준은 기뻤어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허준은 밤낮으로 다른 의관들과 매달려 새로운 의술 책을 만드는데 힘썼어요.

동의보감을 완성하다!

하지만, 몇 년 뒤 선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선조의 건강을 책임진 허준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허준은 죄인이니 귀양을 보내소서." 신하들의 말에 새로 임금이 된 광해군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귀양을 떠난 허준은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 이곳에서 의술 책을 꼭 완성해야겠다.'

1609년, 광해군은 허준을 다시 궁궐로 불러 어의로 삼았어요. 자신을 구해준 허준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내의원으로 돌아온 허준은 1610년 새 의술 책을 완성하고 '동의보감'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동의보감'에는 수많은 약초의 쓰임새와 병의 치료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긴 훌륭한 책이었답니다.

1615년 허준은 세상을 떠났어요.

<탐구형>

장영실

발명가
천문학자

일생

- 과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1423년(세종 5년) 왕의 특명으로 발탁되어 행사직이 되고 1432년 중추원에서 각종 천문의 제작을 감독하였습니다.
- 1433년에는 "혼천의"를 제작하여 완성하고, 이듬해에는 구리 활자인 경자자의 결함을 보완한 새로운 금속활자 "갑인자"의 주조를 지휘감독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최초의 물시계인 보루각의 "자격루"를 만들었습니다.
- 1441년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와 수표를 발명하여 하천의 범람을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고난을 딛고

혼자 노는 장영실!

장영실의 어머니는 관기였어요. 관기란, 관청에 속하면서 춤과 노래, 악기를 다루면 천민이었어요. 천민이라며 따돌리는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없어 장영실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며 혼자 놀았답니다.

10살이 되자, 관청의 노비가 되었어요. 조선 시대에는 부모의 신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졌답니다.

한양으로 간 장영실!

그러던 어느 해 봄,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강물을 끌어다 쓰는 거야!' 장영실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장영실은 수차를 만들어, 열심히 물길을 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물을 끌어왔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이 일로 고을의 현감은 관찰사에게 장영실을 추천했답니다. 그 추천이 받아들여져서 장영실은 한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중국으로 간 장영실!

한양으로 간 장영실은 자신의 손에 닿으면, 모든 물건이 쓰기 편해졌어요.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천은 장영실의 재주를 세종대왕에게 알렸어요.

"중국에 가서 다 많은 것을 보고, 특히 천문을 배워 오너라!" 세종대왕께서 명했어요.

장영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천민 출신으로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으로 간 장영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별과 하늘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으며, 1년 뒤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천민으로 관직에 오른 장영실!

"장영실에게 상의원 별좌(물건을 만들고 관리하는 자리) 벼슬을 내리노라!"

세종대왕의 말에 신하들은 반대했어요. 당시에 노비출신인 자를 궁중에 두어 관리로 등용케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에 모든 문무 대신들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세종은 장영실과 같은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대신들을 설득하여 결국 장영실을 관리직에 등용시켰답니다.

세종대왕의 말에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척척박사 장영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장영실은

"상감마마! 하늘의 움직임을 알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라며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혼천의'랍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지구와 우주의 움직이는 모습을 좀 더 정확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려면 책이 필요한데…… 금속활자가 정교하지 못해서 더 정교한 활자가 필요하네." 세종대왕의 말씀에 장영실은 날마다 구슬땀을 흘렸어요.

"상감마마! 드디어 새로운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갑인자를 만들었어요. 갑인자는 그 전 활자들보다 정교하고 튼튼해 책 만들기가 한결 쉬웠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세종대왕은 또 말했어요.

그 때만 해도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가 있었지만, 흐린 날에는 시간을 알 수 없었답니다.

'언제나 똑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 장영실은 계속 고민했답니다.

"그래 물이다. 물!!"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던 장영실은 소리쳤어요.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며, 그릇에 달린 나무 인형이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자격루를 만들었답니다. 지금의 자명종 같은 자동 시계를 만든 거랍니다.

쫓겨난 장영실!

이러한 공로로 마침내 장영실은 정3품의 벼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1442년에 그의 감독으로 제작된 왕의 가마가 오래가지 못하고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일 때문에 장영실은 벼슬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 장영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답니다.

<탐구형>

석주명

생물학자

일생

나비연구가로 유명한 석주명(石宙明, 1908~1950)은 생물학자로서, 한국을 연구하는 국학자로서 불꽃같은 삶을 산 인물입니다.

한국 나비의 종류를 정하고, 그 이름을 지은 나비분류학자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일찍이 외국인들이 한국 나비를 연구하면서 범한 오류를 바로잡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말 나비 이름 짓기 등의 활동도 하였습니다. 비단 나비학자만이 아닌 주체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조선적 가치'를 추구한 훌륭한 조선학 연구자였던 것 입니다.

고난을 딛고

동물을 좋아하던 석주명!

석주명은 1908년 11월 13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물었어요. "주명아, 이게 무슨 소리니?"

"참새를 한번 길러 보려고 해요. 참 예쁘죠?"

석주명은 동물들을 기르거나 관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13세인 1921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송도고보를 졸업한 그는 1926년 3월 일본에서 손꼽히는 농업전문학교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의 관문을 뚫은 유일한 조선인 학생으로서 유학길에 올랐어요.

'덴마크도 가축을 기르는 낙농업을 하여 큰 부자 나라가 되었지. 나도 조선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해서 축산과에 진학했지만, 실력 있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석주명은 하는 수 없이 박물과로 전공을 바꾸었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답니다.

조선의 나비 전문가가 되기로 하다!

박물과로 옮긴 석주명은 대만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비가 오는데

"지금 곤충을 채집해 오는 학생에게 상을 주겠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죠.

다들 비가 와서 못 잡았지만, 석주명만 하루살이를 잔뜩 잡아왔어요.

"앞으로 조선의 나비를 연구해 보게. 최고의 나비 전문가가 되어 보게나."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그는 나비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생물교사로 나비와 만나다!

졸업 후에는 모교인 송도중학교 생물교사로 부임하여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나비연구에만 전념하였어요. 석주명은 나비에 씐 사람이었죠. 그는 한반도 전역을 훑으며 75만 마리의 나비를 채집했어요. 희귀종을 쫓아 흑산도까지 배를 타기도 했죠. 송도고보의 학생들에게는 방학만 되면 나비를 2백 마리씩 채집해오라는 숙제를 내기도 했죠. 얼마 전까지 초등학생들 방학숙제의 단골메뉴였던 곤충채집이 실은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랍니다. 그와 학생들이 발로 뛴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송도고보의 박물관은 온갖 종류의 나비 표본으로 가득 찼고 개성의 명소가 되었어요.

어느 날, 기차에서 잘못 내린 미국의 지질학자 모리스가 석주명이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석주명의 나비표본을 보고 모리스는 크게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비를 모아 놓다니. 미국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돕겠소."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되다!

어느 날, 석주명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에서는 귀하께 〈조선산 나비 총목록〉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석주명은 10년 연구 끝에 1940년 〈조선산 나비 총목록〉을 통해 일본 학자들이 같은 종인데도 다른 엉터리 학명을 붙여 844종이라고 분류한 한국나비를 248종으로 최종 분류함으로써 한국산 나비의 새로운 분류학 시대를 열었어요. 〈조선 나비 총목록〉은 한국인의 저서로는 처음으로 영국왕립도서관에 소장됐으며, 이로써 석주명은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올라섰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나비 연구에 미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만국인시류 학회'의 정회원(전세계 30명)이 되었답니다.

나비만큼 우리말도 사랑한 그는 새로 발견된 나비에 우리나라 말을 많이 붙였답니다. '수풀떠들썩팔랑나비, 모시나비, 처녀나비, 각시멧노랑나비 등이 있어요.

나비만 생각하다

석주명이 6·25전쟁의 와중에서도 나비의 꿈만을 꾸었어요. 전쟁 통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박물관의 나비 표본을 지켰죠. 그리고 전쟁 중에는 어딜 가나 생명보다 더 아끼던 지도 500장을 배낭에 넣어 메고 다녔어요. 하지만 끝내 시대의 격랑을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1950년 9월말 집중된 서울시내의 폭격으로 국립과학관이 불타는 바람에 그가 20여 년간 수집한 그의 분신과도 같은 나비 표본이 모두 한줌의 재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나비들이 모두 불탄 열흘 뒤(1950년 10월 6일), 과학관 재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가던 그는 인민군으로 오인 받아 불의의 총격을 받고 숨졌어요.

"나는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가 총구를 겨누는 청년들에게 외친 최후의 한마디였답니다.

<탐구형>

이황

교수
학자

일생

퇴계이황(退溪李滉, 1502년 1월 3일(1501년 음력 11월 25일) ~ 1571년 1월 3일(1570년 음력 12월 8일))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교육자, 시인입니다. 영남학파의 창시자인 대학자 이언적의 주리론의 영향을 받고 이를 계승하여 집대성시킴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꼽힙니다.

이이와 더불어 한국의 성리학(유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주자의 이기이원론적 사상 및 영남학파의 창시자인 이언적의 주리설을 계승하여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난을 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다!

이황은 1501년 11월 25일,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계리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더구나 이황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죠. 어머니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황에게 말했어요.

"글을 아무리 잘하고 학식이 많더라도 사람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라." 이황은 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이렇듯 이황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어머니였답니다.

학문에 정진하다!

이황은 6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2살 때부터는 삼촌인 이우에게 '논어'를 배워 학문에 정진했어요. 삼촌이 이황에게 물었어요.

"너는 '논어'의 글 가운데서 어느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느냐?"

"저는 학이편이 제일 좋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행실을 삼가고.…' 이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이황은 이 가르침대로 항상 예절 바르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과거의 길에 오르다!

19살이 되었을 때에는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읽고, 이때부터 이황은 '우주만물의 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성리학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썼어요.

이황은 항상 책을 갖고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황이 20살이 되던 때에는 '주역'이라는 책을 읽느라고 끼니를 걸러서 소화불량증으로 평생을 고생하기도 했어요.

이황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과거나 벼슬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과거를 보지 않느냐? 벼슬보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네 뜻은 알겠지만, 관리가 되어 백성을 어질 게 다스리는 것도 뜻있는 일이다."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이황은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높은 벼슬보다 후학 양성에 힘쓰다!

이황은 34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벼슬에 별 욕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황은 벼슬보다는 학문에 더욱 더 정진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황의 학문과 어진 성품을 알고 있는 임금은 이황이 벼슬에 나와 나랏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이황에게 어명을 내려 암행어사, 예조판서, 대제학 등 여러 직책을 맡겼답니다.

그럴 때 마다 이황은 벼슬을 하다가도 임금에게 사양하고 고향에 내려와 학문에 정진하고 다시 임금이 부르면 벼슬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내려와 제자들을 양성하여 유성룡이나 김성일 같은 인재들을 무수히 길러내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이황이 관직에 있을 때에는 임금에게 건의하여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에 '소수 서원'이라는 사액을 내리도록 하였어요. 이 서원에서 학문에 전념하면서도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지요. 이 서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유명한 바로 '도산 서원'이랍니다.

어린 사람에게서 배우다!

이황이 60세가 되던 때에는 그의 학문이 크게 발전하였어요. '주자서절요', '도산십이곡' 등을 저술하였는데, 그의 학문은 일본과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뛰어났고, 중국인들은 이황을 '동방의 주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어요.

이황은 어느 날, 편지를 한통 받았어요. 한 선비가 이황의 학설에 반대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였어요. 그 사람은 서른세 살밖에 안 된 기대승이라는 젊은 선비였답니다. 그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학설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황은 기대승을 꾸짖기는커녕 정성껏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 뒤, 두 사람은 8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점은 내가 더 생각해봐야겠구나.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많아.'

이황은 대학자였지만, 조금도 으스대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겸손히 받아들였답니다.

이황은 마지막으로 '성학십도'를 지어 선조에게 바치고 6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어요. 한 평생 동안 이황의 생활은 아주 검소하였답니다. 질그릇 세숫대야에 세수를 하고 베옷을 입었으며, 나들이 할 때는 칡으로 삼은 신에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어요. 그리고 밥상에는 나물로 만든 반찬 하나만 올라오곤 하였지요. 이처럼 이황은 항상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다간 인물이랍니다.

<탐구형>

전형필

학예사
문화재수집가

일생

전형필(全鎣弼, 1906년 7월 29일 ~ 1962년 1월 26일)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수집, 보존, 연구가이며 교육가입니다.

훈민정음 원본 등 국보 12점, 보물 10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등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하고, 일본으로 유출된 중요한 문화재들을 되찾아와 1938년 조선 최초의 근대사립미술관인 보화각을 세웠습니다.

해방 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중에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지켜내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상복을 벗을 새가 없던 전형필!

전형필은 1906년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필이 아홉 살이 되면서 집안에 해마다 초상이 났어요. 친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통학교 입학했어요.

3·1운동이 있었던 해 가을, 작은아버지와 큰형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집안 어른들의 이어지는 죽음으로 상복을 벗을 새가 없었어요. 학교에 갈 때에도 상복을 입고 다닌 그의 보통학교 시절은 그렇게 우울하게 지나갔답니다.

옛날 책을 수집하다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다!

1921년 봄, 형필은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고, 남다른 취미가 생겼어요. 그것은 짬짬이 서점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책을 사 모으는 일이었어요. 새 책보다는 옛 선비들의 손때가 묻은 옛날 책에 더 관심이 갔지요.

1929년에 일본으로 간 후,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어요. 역시, 일본에서도 책을 사 모았어요. 그러나, 유학 생활은 많은 괴로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청년으로서 답답한 마을을 가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옛 스승의 소개로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인 오세창 선생님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세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걸세. 우리 문화재는 세계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네.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생애를 바쳐야 한다네.”

문화재를 수집하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전형필은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뒤 본격적으로 문화유산 수집에 뛰어들었어요. 관훈동에 '한남서림'이라는 서점을 내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문화재를 사들였어요.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림들을 모두 사들였어요.

전형필은 골동품의 값을 깎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상대가 물건의 가치를 잘 몰라서 싼 값을 부르더라도 늘 제값을 건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 다투어 전형필에게 물건을 가져왔고, 전형필은 수많은 일급 문화재를 모을 수 있었어요.

1934년, 성북동에 만 평이 넘는 땅과 양옥집을 사서 '북단장'이란 이름으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고려청자를 지키다!

어느 날 고려청자의 소식을 듣고, 전형필은 일본인 마에다의 집에서 청자를 보자마자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마에다는 나이 어린 식민지 백성이 설마 이런 명품을 사겠느냐고 얕보는 표정으로 거들먹거리며 가격을 불렀어요.

"이만 원을 내신다면 넘겨 드리지요."

전형필은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이만 원을 드리지요."

그 당시 웬만한 기와집 한 채가 천원을 하던 때이므로, 이만 원은 엄청 큰돈이었어요. 그 순간 마에다는 눈이 둥그레지며 홀린 기분으로 청자를 전형필에게 팔았답니다.

일본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일본에서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산값의 두 배를 줄 테니 되팔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전형필은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신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며 거절했어요.

이 청자는 최고품으로 인정받아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국보 제68호로 지정되었답니다.

훈민정음을 지키다!

일본은 점점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 문화를 없애 나갔어요. 우리말과 글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듯 사회가 불안하던 1943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훈민정음〉 원본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훈민정음〉 원본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 〈훈민정음〉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이 찾아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 뻔했어요.

"책 주인이 천 원을 불렀다고 하지만, 만 원을 전하시오. 그리고 천 원을 수고비로 받으시오." 그 사람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귀하디귀한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원본은 전형필의 손에 들어왔고, 광복이 되기까지 2년 동안 발견된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지킴이로 나섰던 간송 전형필! 1962년 1월 26일, 57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급성 신우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뜻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예 술 형

예술형 (Artistic)

◇ **김홍도** : 화가
◇ **윤동주** : 시인
◇ **우　륵** : 음악가
◇ **최승희** : 무용가, 댄서
◇ **박지원** : 소설가

<예술형>

김홍도

화가

일생

김홍도는 조선시대의 화가로, 영·정조의 문예 부흥기부터 순조 연간 초기에 활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강세황의 지도를 받아 그림을 그렸고, 그의 추천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어 정조의 신임 속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풍속 등 모든 장르에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군선도》,《서원아집도》,《행려풍속도》,『단원풍속도첩』,《송월도》,《단원도》,『금강사군첩』,『을묘년화첩』,『병진년화첩』등이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뛰어난 스승의 제자가 되다!

1745년, 가난한 중인(양반과 상인 사이의 신분)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그 소질도 뛰어났어요.

어느 날, 육촌 형수가 김홍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강세황 선생님이 도련님이 그린 그림을 보더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김홍도가 8살이던 어느 날 당시 조선의 뛰어난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 대감을 만났어요.

강세황은 어린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보겠습니다."

'청출어람'이 되어 스승을 뛰어 넘다!

강세황의 도움으로 김홍도는 '도화서'(그림 그리는 관청)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곳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김홍도는 얼마 후, 그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그림을 그렸죠. 그리하여 그는 12살에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로 조그마한 벼슬까지 얻었지요.

어느 날, 김홍도는 일터에서 강세황을 만났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자네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네."

뒤늦게 벼슬길에 나선 강세황이 제자와 똑같은 벼슬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조금도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승이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썼답니다.

천재화가로 불리다!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1781년에는 모든 화원들의 꿈인 '어용화사'(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또한 이 때 정조의 초상화를 그려 천재 화가로 불렸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풍속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는 격이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김홍도는 풍속화에 재치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의 그림에는 서당에서 훈장에게 혼나고 있는 아이의 모습, 씨름하는 모습, 엿장수, 대장장이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였답니다. 여기서 양반 출신답지 않은 그의 소박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풍속화는 화원을 뽑는 시험 과목의 하나가 되기까지 했지요. 정조 임금은 이런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어요.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김홍도와 정조 덕분에 풍속화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정조는 김홍도에게 또다시 큰일을 맡겼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 오너라."

김홍도는 김응환과 함께 금강산과 강원도 주변을 돌아다니며 백 장이 넘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진경산수화를 그렸어요. 진경산수화란 우리나라의 강산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을 말해요. 당시 조선의 산수화를 보면, 중국의 경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그린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김홍도는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중국의 풍경을 그리기 보다는 우리의 산과 강을 그렸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직접 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그림에 정조는 크게 기뻐했답니다.

벼슬을 내려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다!

김홍도가 충청도 연풍 지방의 현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중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어요. 화원 출신이 현감이 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답니다. 김홍도는 벼슬을 내린 정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바른 정치를 하여 백성을 돕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관청에 있는 곡식으로 죽을 끓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지만, 이 일로 백성과 허물없이 지내는 김홍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모함을 하여 다시 궁궐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답니다.

1800년, 갑작스럽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찬란하게 꽃피던 문화 사업도 빛을 잃기 시작했어요. 김홍도는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 주문이 줄어들어 살림이 조금씩 어려워졌지만, 풍류와 멋을 잃지는 않았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화가 김홍도!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백성을 좋아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술형>

윤동주

시인

일생

- 윤동주(尹東柱, 1917년 12월 30일 ~ 1945년 2월 16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시인, 작가입니다.
- 연변 용정에서 출생,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숭실중학교 때 처음 시작을 발표하였고, 1939년 연희전문 2학년 재학 중 소년(少年)지에 시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 일본 유학 후 도시샤 대학 재학 중,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福岡刑務所)에 투옥,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글을 좋아했던 윤동주!

윤동주는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어린이 잡지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시끌벅적 했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글을 써서 잡지를 만들어 보자!"

윤동주가 열두 살 되던 해, 친구들끼리 쓴 시와 글을 모아 〈새 명동〉이라는 작은 책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가난하지만 즐거웠던 학창시절!

그 무렵,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땅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못 쓰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윤동주가 다니는 북간도의 명동 소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라도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윤동주가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일본은 만주 땅마저 빼앗으려고 쳐들어왔어요. 결국 가족들은 용정에 있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굶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서로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은진중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는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급우들과 교내 문예지를 만들고, 축구선수로 뛰고, 교내 웅변대회에서 〈땀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1등도 하였지요. 친구들은 뭐든지 척척 잘하는 윤동주를 좋아하고 따랐어요.

하지만 즐거웠던 은진 중학교의 생활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1935년, 평양의 숭실 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하지만 그곳의 생활은 즐겁지 않았어요. 일제가 숭실학교에 대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에 저항한 숭실학교 교장이 파면 당했어요. 이에 항의 한 학생들이 동맹퇴학을 감행하였는데 윤동주도 함께 자퇴했어요.

윤동주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를 썼어요. 이때에 쓴 시가 〈가톨릭 소년〉 잡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나는 시인이 될 거야! 그래서 고통 받는 민족의 마음과 나라 잃은 슬픔을 시에 담아야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가고야 말겠어!'

윤동주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좋은 글로 사람 마음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겠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였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38년 2월, 윤동주는 연희 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며, 정지용, 이상의 시와 릴케, 보들레르의 시를 배우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당장 총칼을 들고 일본에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그럴 용기가 없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그 동안 썼던 시 19편을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첫 시집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일본 경찰에 고문을 당할 것을 걱정한 이양하 교수의 만류에 출판을 하지 못했답니다.

일제의 고문에 쓰러지다!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자신이 좋아한 정지용 선생이 다닌 학교에서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갑자기 일본 형사들이 윤동주의 방에 들이닥쳤어요.

"일본에 왜 왔는지 바른대로 말해!" 항일 운동을 한 죄로 윤동주를 잡아들였어요.

"당장 네가 조선말로 쓴 시와 일기를 일본말로 옮겨라." 윤동주는 악랄한 일본 형사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섯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한 윤동주는 감옥에서 이상한 주사를 강제로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윤동주는 스물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서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술형>

우륵

음악가

일생

대가야국(大伽倻國) 사람으로 가실왕(嘉實王)의 총애를 받았으며, 왕의 뜻을 받들어 12현금(絃琴:가야금)을 만들고 이 악기의 연주곡으로 12곡을 지었습니다.

그 뒤 가야국이 어지러워지자 가얏고를 들고 제자 이문(泥文)과 함께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는데, 왕은 그를 맞아 국원(國原:지금의 충주)에 안치시키고 계고(階古)·만덕(萬德)·법지(法知) 등을 보내어 그의 업(業)을 전습하게 하였습니다.

진흥왕에 의하여 가야금곡이 궁중음악이 되고, 모두 185곡의 가야금곡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가야를 사랑하여 가야금을 만들다!

우륵은 490년경 대가야의 직할 현인 성열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나이 30대였을 때, 가실왕의 부름을 받았죠. 왕은 언제나 중국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을 못마땅해서, 우륵에게 중국과 다른 가야만의 악기를 만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우륵은 열두 줄에 오동나무와 명주 실로 만든 가야금을 내놓았어요.

"겉모양만 봐서는 그다지 다른 듯하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오?"

"열두 줄은 열두 달의 각기 다른 소리를 의미하옵니다. 이는 여러 개로 나누어진 가야국이 통일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영원히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옵니다."

이처럼 가야금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국의 통일을 이루어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고 싶다는 애국심이 녹아 있는 악기였어요. 따라서, 우륵이 만든 가야금이야말로 가장 우리나라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답니다.

가야를 노래하다!

"가야금도 완성되었으니, 가야만의 노래를 만들어 보시오."

왕의 명령에 우륵은 12곡을 만들었어요. 총 12곡 중에서 3번째는 공을 가지고 노는 곡예음악이었고, 8번째는 사자춤의 배경 음악이었죠. 나머지 10곡은 대부분 가야 지방의 명칭이었어요. 우륵의 열 두곡은 가야 연맹에 소속된 여러 나라들의 전통 음악을 편곡한 것이었죠. 이 또한 가야금처럼 가야국이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졌답니다.

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다!

"악공님, 신라국이 가야국을 공격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륵 밑에서 연주와 노래, 춤을 배우며 함께 공연을 하는 이문이 물었어요.

가야국의 통일을 그렇게 바라던 우륵이기에 나라가 사라진다면 자기 한목숨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야국 백성들의 영혼이 그대로 담긴 가야금 소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야금만은 내가 지켜야겠다.'

"문아, 우리 낭성으로 떠나자. 그곳에서 신라국 임금님께 연주를 들려주어야겠다. 가야금으로 연주한 열두 곡의 소리를 듣는다면, 가야금에 창을 겨누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우륵과 이문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마을 한 곁에 있는 조그만 초가를 구하여 날마다 기회를 보며 연주를 하였어요.

그러고 얼마 뒤 우륵은 그토록 기다리던 신라국의 임금 진흥왕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행차를 멈추고,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하여 우륵은 드디어 신라국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륵은 말했어요.

"이것은 가야금이라는 가야국의 악기입니다. 제가 연주한 곡은 가야국 임금님께서 명하여 만든 열두 곡 중 하나입니다. 제 고국인 가야국의 운명이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기와 곡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신라의 백성이 되어 다섯 곡이 되다!

진흥왕은 신라의 악공을 보내 우륵에게 가야금 연주를 배우도록 했어요.

"열두 곡을 듣자니 너무 복잡합니다. 곡을 좀 줄이고 고쳐야겠습니다."

우륵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새롭게 바꾼 음악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깔끔했어요.

'내가 신라에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가야국을 버린 적은 없다. 열두 곡은 가야국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들이 곡을 바꾸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 신라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곡이니까.' 우륵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편곡한 곡을 들은 진흥왕은 신라다운 음악이 되었다며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륵이 망한 나라에서 온 악공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일삼던 이들도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우륵은 마음껏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지요.

가실왕의 곁으로 가다!

진흥왕은 신라에서 아름답다 소문 난 곳을 우륵의 연주 장소로 허락해주었어요. 우륵은 날마다 가야금을 들고 탄금대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연주를 했어요.

어느 날, 날이 흐린 새벽 탄금대에 오른 우륵은 꼭대기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그 어느 날보다 더 정성을 들여 가야국에서 만든 열두 곡을 한 곡씩 연주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 탄금대 높은 절벽 아래로 가실왕에게 연주해 주려고 몸을 던졌답니다.

<예술형>

최승희

무용가
댄서

일생

- 최승희는 무용계에 입문하여 무용단의 일원이 되어 각지에서 공연을 펼쳤고,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잇따라 신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 전통무용을 익혀 자신의 창작무용에 응용했습니다. 칼춤과 부채춤, 승무등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해 조선 무용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 광복 후 친일파라는 오명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전통 무용의 체계화와 무용극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고난을 딛고

무용가를 꿈꾸다!

최승희는 학교 행사 때면 매번 대표로 나와 무대에 섰어요.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께서 "승희야, 넌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 일본에 가서 음악가가 되려무나." 하고 제안했죠.

그러나 이 계획은 좌절되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2년이나 빨리 졸업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입학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승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몇 말 며칠을 울었어요. 오빠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세계적인 무용가-이시이 바쿠의 조선 공연, 이시이 바쿠의 제자를 모집합니다.!'

오빠는 학예회에서 춤추던 동생이 생각나서 승희를 바쿠 공연에 데리고 갔어요.

최승희는 공연에 반해, 무용가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피나는 연습을 하다!

1926년 3월, 이시이 바쿠를 따라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슬픔은 컸지만, 눈물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무용가가 되겠어.'

최승희는 매일 무용만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시이 바쿠는 자신의 춤뿐 아니라, 서구의 춤인 '발레'와 '현대 무용'도 가르쳤어요. 발레는 다리를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며 우아하게 추는 춤이었고, 현대 무용은 아름다움과 고통, 슬픔 같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밤이 되면 다리가 붓고 아팠어요.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느라, 무릎에는 멍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조선에서 춤을 추다!

이듬해 이시이 바쿠는 조선의 경성으로 공연을 가게 되었어요. 최승희가 혼자 춤을 추는 순서도 있었어요. 승희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아, 드디어 나의 춤을 부모님과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게 되었어!'

공연 날,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객석은 최승희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외롭게 경성을 떠나야 했던 예전과는 다른 가슴 벅찬 상황이었답니다.

어렵게 공연을 펼치다!

최승희는 3년 후 오빠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고민 끝에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무용 연구소를 차렸어요.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최승희는 돈이 없는 젊은 예술가였어요. 다행히 한 일본 사람이 무용실로 쓰라며 빈집을 빌려 준 덕분에 겨우 연습을 할 수 있었죠.

이듬해 봄, 드디어 첫 공연이 열렸어요. 많은 관객이 몰렸답니다. 그러나 무용 연구소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가난해서, 공연 입장료를 아주 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계 최고를 꿈꾸다!

이시이 바쿠가 조선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승을 찾아갔어요.

"너는 조선 사람이니, 이제부터 조선 춤을 배워 보는 게 어떻겠느냐?"

스승의 말에 처음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스승의 뜻을 알 것 같았어요. 막상 우리 춤을 배워보니 너무도 자유롭게 흥겨웠어요.

1934년 초가을, 일본에서 최승희는 우리나라의 춤을 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칼을 들고 무당이 추는 춤을 재해석한 〈검무〉, 술취한 사람의 행동과 몸짓을 표현한 〈에헤야 노아라〉 등 최승희가 새롭게 창작한 조선 춤은 관객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받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가락과 춤을 보여 주겠어"

프랑스 파리에서 한 최승희의 공연에서 무려 26편의 작품을 1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무대에 서며 관중 앞에서 쉬지 않고 춤을 춘 끝에 찬사를 받았답니다. 이후,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등을 돌며 150회가 넘는 공연을 했어요. 드디어 최승희가 바라던 '세계적인 무용가'의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광복이후 나라가 둘로 쪼개지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최승희는 남쪽에 있고 싶었지만,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한 남편이 북으로 가기를 원해서 북으로 갈 수 밖에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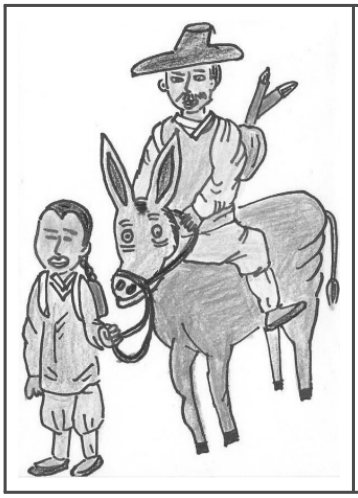
처음에 북한은 처음에 열렬한 환영을 하고, 많은 돈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최승희의 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어지러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이 사라지고 최승희 역시 무용계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만 무성하답니다.

<예술형>

박지원

소설가

일생



- 박지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당시 허위의식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였던 북학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 《열하일기》, 《연암집》, 《허생전》 등을 쓴 조선후기 실학자 겸 소설가입니다.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자유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 중국의 실용적인 문명을 실천하며, 북학의 정신을 직접 현장에서 구현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고난을 딛고

우울증에 걸리다!

박지원은 1737년, 아주 이름 높은 양반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양반 가문에서 과거 시험을 봐서 높은 관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지원은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도 모르면서 시험만 잘 쳐서 관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당시, 과거 시험은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전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시험관들도 그저 가까이 놓인 시험지만 대충 읽고 점수를 매겼어요.

이런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을 치르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박지원은 마침내 병이 걸렸어요.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하다!

지원은 자신의 병을 치료할 방법으로 색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저잣거리를 다니면서, 모두 돈도 없고, 신분도 낮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진심으로 우정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글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분이 한결 개운해졌답니다.

<양반전>을 쓰다!

어느 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원도 정선 지방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돈이 많아, 양반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가난한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이 되었어요. 고을 군수가 양반 문서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읽어 주었어요.
첫 번째 문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예절이 적혀있었는데, 그게 다 어처구니없는 거였어요. '양반을 밥을 먹을 때 갓을 써야 한다.' 등 그러자, 가만히 듣던 부자가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예절이오? 순전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지."
두 번째 문서에는 특권이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백성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그만둡시다. 당신들은 나를 아예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오!"
부자는 더 이상 '양반'이라는 소리를 입에 답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원은 이 이야기야 말로 양반들의 위선과 나쁜 짓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깊이 반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양반전〉이란 소설을 썼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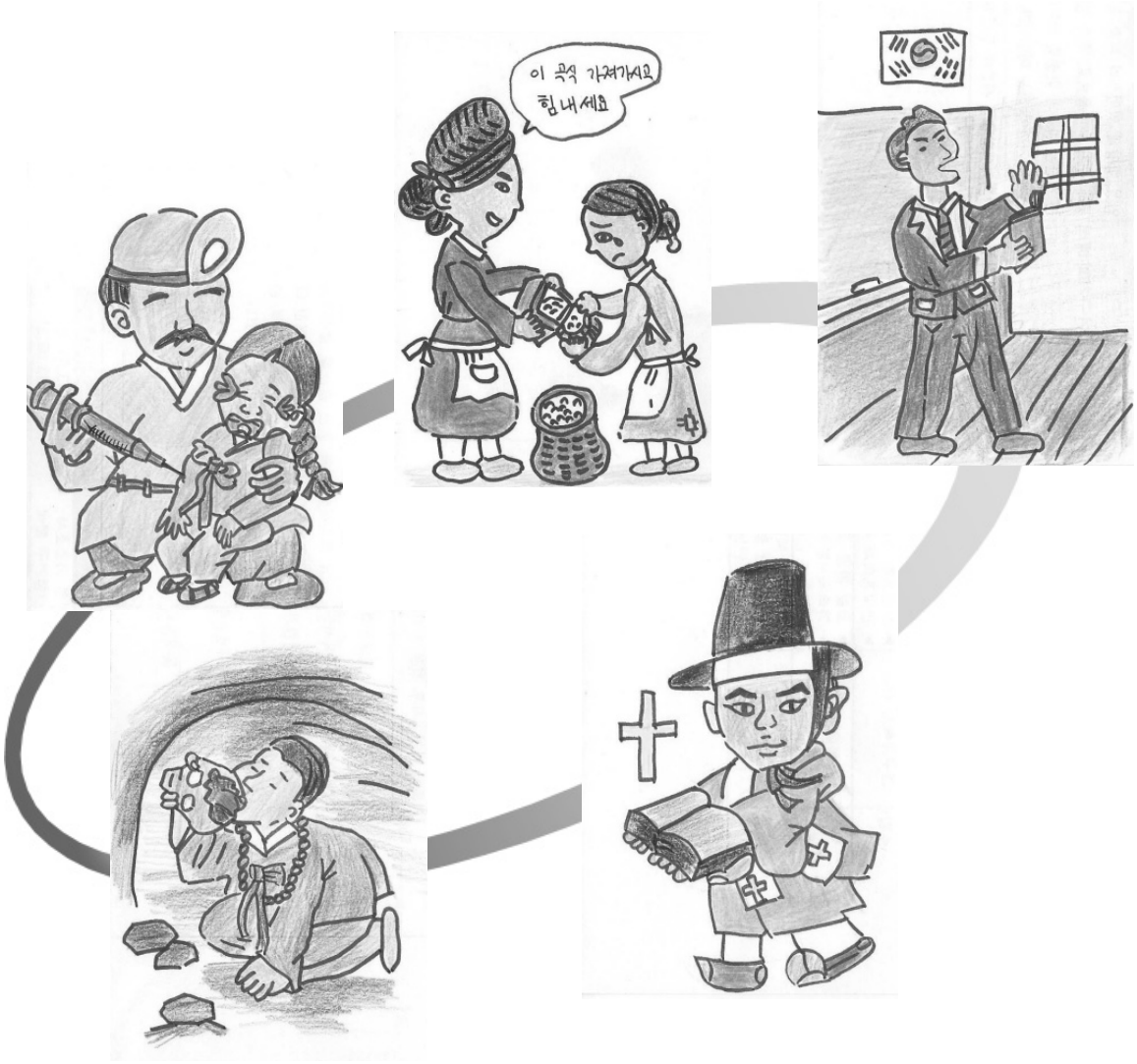
청나라 여행기! <열하일기>

우울한 심정에 어디론가 멀리 떠났으면 하고 지내던 차에 때마침 청나라 여행의 기회가 왔어요. 친척 형이 청나라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로 가게 되면서 박지원을 개인 비서로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로부터 발달한 문물과 제도에 들었던 그는 설레었어요.
그러나 여행은 무척 힘들었어요. 열하까지는 약 3,000일의 길로 우리나라 북쪽 끝과 남쪽 끝을 이은 엄청난 거리를 6개월 동안이나 가야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지원은 힘든 여정 동안에도 틈만 나면 일행에서 빠져나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중국의 이모저모를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러면서 재미난 글이 있으면 무조건 적었어요.
그 중의 한 이야기가 〈호질〉이랍니다. 호질은『산중의 왕 호랑이가 하루는 깨끗하고 푸짐한 먹을거리를 찾아다녔으나, 양반이라는 작자가 더럽다며 그냥 갔다』는 내용이에요. 양반들의 위선과 타락을 폭로한 작품이랍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 삼 년쯤 뒤에 〈열하일기〉를 완성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최고의 문장이라고 한 반면,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장이 너무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책의 내용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웃겼답니다.
하지만, 웃긴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조선이 빈곤한 주요 원인을 수레를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썼어요. 수레나 배로 대표되는 유통수단의 미흡함, 도로망 건설의 소홀이 조선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이었답니다.

임금도 웃어넘기다!

소문은 날로 커져, 마침내 정조 임금이 나서서 문장이 저속하다며 지적했어요.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하더니 문체가 이 따위로 변했다. 마땅히 사고를 친 자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조의 이 같은 호령에 박지원은 변명이라고 격식을 잔뜩 갖춘 속죄 문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글이 또 보기 드문 명문이라서 정조가 웃어 넘겼답니다.
한양의 생각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박지원은 몸이 쇠약해지자 약을 물리치고 죽음을 준비했어요. 청년 시절 우울증을 치료해주던 거리의 친구들을 불러들여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69세의 나이로 마침내 생을 마감했답니다.

사 회 형



사회형 (Social)

◇ **김만덕 :** 구호활동가, 상인
◇ **안창호 :** 교사, 교육자, 독립운동가
◇ **김대건 :** 신부, 종교인
◇ **원　효 :** 스님, 철학자
◇ **지석영 :** 약사

<사회형>

김만덕

구호활동가
상인

일생

- **김만덕은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입니다. 사업에 성공했고, 그 돈을 굶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내 놓았습니다.**
- **위기에 처하자, 김만덕은 유통업으로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구입하여 제주민들을 살려내었습니다.**
- **김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임금(정조)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고, 명예직이었으나 '의녀반수'라는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에 이르러 주변부에서부터 중심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고아에서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다!

옛날 제주에 만덕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만덕이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혼자가 된 만덕이는 평소에 늘 딸처럼 귀여워해주시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안계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지요.

"만덕아~이제 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도우면서 함께 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덕이는 아저씨 집에서 살면서 가게일도 열심히 도왔지요. 그 덕에 만덕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아저씨의 가게일로 해서 번 돈이 차곡차곡 쌓였으므로 제주에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다!

그러던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밭에 곡식들이 다 말랐어요. 흉년이 든 것이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을이 되었는데도 추수할 것이 없었어요.

마침내 이곳저곳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신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당장 제주에 백성에게 곡식을 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이 소식이 제주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살았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데 웬 일인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곡식을 실은 배는 오지 않았어요.

"한양에서는 곡식을 보냈다는데 왜 배가 도착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들리는 말로는 곡식을 싣고 오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혔다고 하네."
"배가 뒤집혔다고요? 아이고 우리는 이젠 굶어죽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은 김만덕은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자신이 뭐 도울 게 없나하고 곰곰이 생각했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지. 나의 힘이 닿는 대로 도와야겠다'라고 만덕이는 결심했어요. 만덕이는 하인을 불러 곳간의 열쇠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 열쇠로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내어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어라"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은 이웃 나라에 팔려고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그들이 물건을 사 주지 않았다면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없었을 게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것뿐이니라."
김만덕이 곳간을 열어 쌀을 풀어 나누어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굶어서 허기진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왔어요. 나누어주는 쌀을 받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고마워했지요. 이렇게 나누어준 쌀을 이웃끼리 나누어먹으면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덕이가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덕에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 칭송이 자자했어요.
"만덕이가 우리를 살렸네."
"만덕이는 우리 마을 제주의 자랑이야 만덕이 만세~"

임금도 감동하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 후에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여인 한명이 굶주린 제주도 백성을 살렸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내가 직접 상을 내릴 것이니 만덕이를 속히 이곳으로 데리고 오너라"
한양으로 올라온 김만덕은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리려고 하자 꼭 가보고 싶은 금강산을 구경시켜 달라고 만 할뿐 그녀는 임금님이 내리는 상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도 상을 마다하는 만덕이의 겸손함에 감탄한 임금님은 만덕이가 금강산 구경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답니다.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이웃을 살려낸 김만덕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제주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사회형>

안창호

교사, 교육자
독립운동가

일생

- **안창호의 호는 도산(島山), 근세 조선 말기와 일제 시대를 통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1899년에 점진 학교(漸進學校), 대성학교(大成學校)를 설립하고 1913년에 흥사단을 조직하여 무실 · 역행 · 충의 · 용감의 4대 정신을 강조하였다.**
- **한말의 독립운동가·사상가입니다. 독립협회(獨立協會), 신민회(新民會), 흥사단(興士團)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활동을 하였습니다.**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교육자가 되다!

안창호는 나라의 기운이 다해 가던, 1878년 농사를 짓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에는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9살이 되던 때부터 서당에 다녔어요. 서당에 다닐 때에도 안창호는 반드시 찬물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다음에야 서당에 나갔고 앉은 자세도 항상 반듯했었어요.

안창호 나이 16세 때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힘이 없는 우리나라를 서로 지배하겠다고 벌인 청일전쟁이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당하는 것이야! 힘을 길러야 해! 나라의 힘은 바로 국민의 지적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야. 나는 평생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바칠 거야!” 그 때부터 안창호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만민 공동회로 사람들을 일깨우다!

“배우고 싶은 자는 누구든 오시오. 먹고 자는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시오!”

17살이 된 안창호는 이 말을 듣고 외국인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 학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학문을 배운 후에 독립협회에 들어갔어요. 독립협회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거리에서 연설 대회를 마련하였어요. 바로 ‘만민 공동회’랍니다. 안창호는 18가지 옳은 일과 18가지 옳지 못한 일을 낱낱이 밝혔어요. 이 연설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가다!

서양 문물을 배워 우리 국민에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배우기 위해 안창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안창호는 지저분한 곳을 치우고 창문과 대문 앞에 화분을 놓으며 먼저 실천으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학교를 세우다!

일본이 조선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할 일을 찾자!' 1907년 안창호는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비밀리에 '신민회'를 만들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사도 세웠지요.

안창호는 젊은이들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 젊은이들을 일깨웠어요. 민족교육운동을 통해서만이 나라의 자주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발전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힘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힘이란 부력과 병력이다. 그러나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 없이는 부력도 국력도 생길 수 없다. 국민의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이 없이는 농업이나 공업도 발전할 수 없고 또 대포와 군함이 있어도 그것을 쓸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안창호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정치 문제로 보지 않았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 실력양성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어요.

하지만 결국, 1910년 일본은 기어코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에 합쳐버렸고,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안창호는 다시 미국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다!

미국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1919년, 안창호는 독립 자금을 모아 중국 상하이로 갔어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 운동을 하던 중에 일본 경찰들이 독립 운동가를 모조리 잡겠다는 위험한 날이었어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장교에게 폭탄을 던졌거든요.

"선생님 지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집에 들러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을 한 날이라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 온 내가 어찌 약속을 어길 수 있겠나?"

안창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지만,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감옥에 간 안창호는 오랜 감옥생활 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다만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게 원통할 뿐이오."

이 말을 남긴 채 예순한 살의 나이로 영원히 잠들었답니다.

<사회형>

김대건

신부
종교인

일생

- **한국 천주교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입니다.**
- **금가항 신학교에서 탁덕(鐸德)으로 승품(陞品),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신부가 되어 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 **충남 강경에 잠입하여 각지를 순방하면서 비밀리에 신도들을 격려하고 전도하였습니다.**
- **1925년 로마교황 비오11세에 의해 복자로 선포되었고, 1984년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박해받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다!

김대건은 1822년, 충청남도 내포 당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이었지요. 김대건의 증조할아버지 진후는 50세 때 교인이던 아들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였죠.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 여러 차례 검거되어 고난을 겪다가 1814년 충청남도 해미 옥중에서 순교 했답니다. 이에 김대건의 할아버지 택현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경기도 안성으로 이사하였고, 김대건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의 아버지 제준은 다시 내포로 이사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1839년 기해박해 때 한양 서소문 밖에서 순교했어요. 이처럼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난 어린 김대건 역시 신앙심이 깊고 총명하였답니다.

세례를 받고 공부하다!

15살 때 프랑스인인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앙드레'라는 세례명을 얻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김대건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방 신부가 김대건을 소개했어요.

"나는 최양업 토마스야. 반갑다." "난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해."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세 소년을 보며 모방 신부는 마음이 든든했어요.

"모두 같은 나이니까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 도와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천주교를 나쁜 종교라고 탄압하였지요. 그래서 신해박해, 신유박해 등으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 마카오로 가다!

모방 신부는 천주교인 박해 때문에 조선 국내에서는 조선인 성직자 양성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어요. 그래서 김대건을 비롯한 세 명의 신학생들을 뽑아, 파리 외방전교회 동양대표부가 있는 마카오로 보내기로 했어요. 모방신부는 이들에게 라틴어와 함께 성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가르친 후, 세 명의 신학생들을 중국인 신부인 유방제 신부와 함께 마카오로 보냈어요. 1837년 6월, 무사히 마카오에 도착한 김대건은 최양업, 최방재 등과 함께 파리 외방선교회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신학, 철학 등 새로운 학문을 두루 배워 나갔어요.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되다!

공부를 마친 김대건은 1845년, 국경을 넘어 한양에 몰래 들어왔어요.

"박해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를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돼! 하느님의 말씀을 조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시킬 거야!"

그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어요. 하지만 조선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지요. 그는 4년간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천주교 교리 공부에 열중하였어요. 그리고 이때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로부터 신품성사(신부가 될 부제가 주교로부터 받는 성사)를 받았는데, 이로써 마침내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탄생하였어요.

신부가 되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김대건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쳐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기 위해 찾아 들었답니다.

천주교 전파에 힘쓰다 순교하다!

그러나 1846년 6월, 만주에 머물고 있는 메스트르 신부 등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돕기 위해 서해안 길을 개척하다가 관헌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체포된 김대건 신부는 국가의 금령을 어기고 출국한 사실 및 천주교의 신부임이 밝혀지면서, 40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를 취조한 관리들은 그의 신학문에 대한 조예와 영어, 프랑스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답니다.

"영의정 권돈인이 아뢰옵니다. 프랑스와 내통하고 있는 이런 자를 살려둔다면 장차 나라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그를 속히 처형해야만 합니다."

결국, 김대건의 처형이 결정되고 사형집행장에서

"너희들도 천주교인이 되어 내가 있을 곳에 오도록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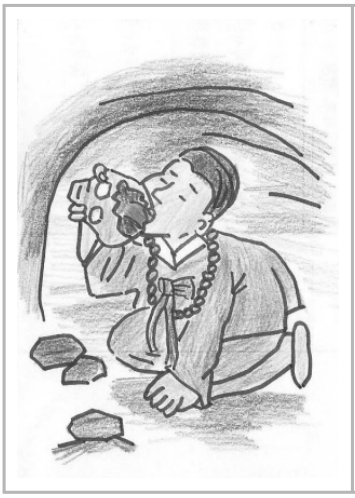
그는 담담히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어요. 김대건의 목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때 그의 나이 26세, 그의 목이 떨어지자 형장에는 큰 뇌성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해요.

<사회형>

원효

스님
철학자

일생



원효(元曉, 617년 ~ 686년 4월 28일(음력 3월 30일), 경상북도 경산시)는 삼국시대와 신라의 고승이자 철학자, 작가, 시인, 정치인입니다. 아버지는 내말 설담날이며, 태종무열왕의 둘째 사위이고 설총이 그의 아들입니다.

한국불교 최초의 깨달은 스님, 한국 최초의 대처승으로도 유명하였습니다.

일심사상(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 화쟁사상(신라에 들어온 모든 사상을 하나로 묶는 것), 무애사상(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세 가지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깨닫기 위해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다!

617년, 밤나무 아래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서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서당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이었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왜 사이좋게 살지 못하죠?"

그 때 신라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도 했어요. 어린 서당의 눈에는 무서웠답니다.

어느 날, 서당이 사는 마을에 한 스님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다니며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 이야기에 큰 소리로 웃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당은 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서로 사이좋게 살지 못하는 것에 궁금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게다." 스님의 말씀에 열다섯 살 무렵에 집을 나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원효로 바꾸고 스님의 길로 접어들다!

서당은 이름을 '원효'로 바꾸고 밤낮으로 불경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깨달음은 쉽지 않았어요. 그 때마다 원효는 '부처님의 말씀만이 가엾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효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어느 날, 원효는 의상이라는 스님을 만나 같이 당나라로 가서 불경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처음 육지로 가기로 했으나, 고구려의 의심을 사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해골 물로 깨달음을 얻다!

그리고 10년 후, 다시 당나라로 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러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밤이 깊어졌죠.

"저기 움막이 보입니다. 오늘은 저 곳에서 쉬어 갑시다!" 몸이 지쳐 들어가자마자 곯아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원효는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어요. 목이 말랐기 때문이죠.

문득 어두운 움막 안에서 바가지처럼 생긴 것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벌컥, 벌컥……. 아!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야. 갈증이 확 풀리는구나."

원효는 시원하게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움막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던 거죠.

'이런 내가 해골 물을 마셨구나!'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 깊은 깨달음이 찾아 왔어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하던 물이 알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는구나. 그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거야.' 원효는 의상과 헤어져 다시 신라로 돌아갔어요.

나무아미타불, 백성을 생각하다!

원효는 돌아와서 쉬지 않고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썼어요. 광대들과 어울리고, 거지들과 어울리며 부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스님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뜻도 모르는 채 어려운 불경을 외우기보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낫다오!"

백성들도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 주는 원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어느 날, 원효를 따르던 일반 백성들 중, 늙은 노모를 모시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의 어머니가 죽자, 원효는 몸소 그 상여를 들고 묘자리까지 갔어요. 가는 동안 원효를 시기하던 백성들이 몰려와서 욕을 퍼부었지만, 원효는 아랑곳 않고 묘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고인을 위해 경을 읽어주는 것도 모자라 직접 삽을 들고 묘를 팠어요.

그 와중에 제자가 달려와서 말하기를 "장안의 스님들이 원효를 몰아내자고 달려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라며 원효에게 떠날 것을 권유했어요. 그러나 원효는 담담하게 "됐다, 그냥 다 오라고 해라. 자기 어미의 장례에 빠져서는 되겠나?" 라고 말했어요. 이에 제자가 '제 어미'가 누구냐고 묻자 원효가 답했어요.

"지금 여기서 치르는 이 장례가 바로 네 어미 장례다." 남의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원효의 말에 그 제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주교 전파에 힘쓰다 순교하다!

원효는 이렇듯, 백성들 품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몸소 전파하였어요. 그 뒤로도 더 많은 책들을 풀이해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686년, 일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원효의 큰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사회형>

지석영

약사

일생

지석영(池錫永, 1855년 5월 15일 ~ 1935년 2월 1일)은 조선 말기의 문신, 약사, 의사이며, 한글 학자입니다.

조선 고종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고 종두법의 하나인 우두법의 보급에 공헌하였습니다.

조선의 종두법 시행의 선구자로, 종두에 대한 알기 쉬운 서적을 저술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천연두가 유행할 때마다 우두 종법을 실시하여 병에 걸린 이들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보급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에는 고종으로부터 팔괘장과 태극장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딛고

한의학을 공부한 지석영!

지석영은 1855년 5월 15일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지석영의 집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지석영의 아버지는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 약을 잘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 안에는 여러 가지 한약 재료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에 대해서 말이 알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지석영이 한의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박영선이라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박영선은 뛰어난 의원이었어요.

종두법을 배우기로 결심하다!

1879년 한양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때 지석영의 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겁지겁 지석영을 찾아왔어요.

“석영아, 둘째가 온몸에 열꽃이 피었구나!” 어린 조카가 천연두에 걸리고 만 거예요. 지석영은 정성을 다해 조카를 보살폈어요. 하지만, 조카는 며칠 동안 심하게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지석영은 3년전에 스승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가 일본인이 쓴 〈종두귀감〉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지만, 서양과 일본의 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었죠. 조카가 죽는 모습을 보며 지석영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종두법을 배우고야 말겠어!’

지석영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답니다.

종두법을 배워 접종하다!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부산포에 큰 의원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석영은 그 길로 의원을 찾아갔어요.

"저에게 종두법을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산포에 있던 제생 의원의 쓰시마 원장은 지석영의 열정에 깜짝 놀라며, 지석영의 부탁을 들어 주었어요. 그 뒤, 차근차근 종두법을 배웠답니다.

종두를 위한 두묘 세 병과 종두침 두 개를 얻어 부산포를 떠났어요. 우선 장인어른 댁에 가서 처남에게 접종하기로 했어요.

"자네, 지금 어린 처남을 죽일 셈인가?" 장인어른은 우두 주사가 소 고름을 집어넣은 주사라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석영의 자신 있는 태도에 감동한 장인은 사위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지석영의 어린 처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두 주사를 맞게 되었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우두 주사를 놓은 자리에 부스럼이 나타났어요. 부스럼이 나타났다는 것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요.

"만세! 성공입니다. 이제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석영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두묘 만드는 법을 배워오다!

처음에는 우두 주사를 맞겠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천연두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군, 벌써 두묘가 바닥이 났으니……"

지석영은 종두법의 중요성과 지금의 어려움을 조정에 알려, 일본으로 가는 수신사 편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일본에 가면 두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일본에 간 지석영은 두묘를 구하는 대신 아예 두묘 만드는 법을 배워 왔답니다.

한양에 돌아오자마자 종두장을 세웠어요. 종두장에서 두묘를 만들고, 종두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곧, 종두장은 우두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댔어요.

신식 의학교를 세우다!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종두법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지석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법에 관한 책인 〈우두신설〉을 완성했어요. 지석영의 노력으로 1895년에는 '종두 규칙'이 만들어졌고, 종두 의사를 키우는 '종두 의사 양성소'도 생겨났지요. 또한 여러 사람과 뜻을 모아 상소를 올렸어요.

"신식 의학교를 세워 백성들을 질병에서 구해야 합니다!"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지석영은 한성 의학교의 초대 교장에 되어 우리나라 의학 교육과 발전에 힘을 기울였답니다.

많은 사람을 천연두에서 구한 지석영은 1935년 2월 1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진 취 형

진취형 (Enterprising)

◇ **김　구 :** 대통령,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 **이순신 :** 군인, 해군장교
◇ **임상옥 :** 상인
◇ **장보고 :** 국제무역상, 군인
◇ **서　희 :** 외교관

<진취형>

김구

대통령,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일생

- 1876(고종 13)-1949.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입니다.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를 지휘했습니다.
-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에 선임되었습니다. 신민회, 한인애국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 광복 후에는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고난을 딛고

조선시대 상민의 차별을 넘어 양반을 꿈꾸다!

김구의 어릴 적 이름은 창암으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 양반들이 상민이라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창암은 아버지께,
"나도 양반이 될 수 있도록 글방에 보내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과거시험에 합격할게요."라고 말했어요.
고민하시던 아버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살림이라, 먼 산길의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께서는 어린 창암을 보고, 가르쳐 주겠다고 허락했지요.
몇 년 후, "이제 더 이상 가르칠게 없구나. 과거시험을 치도록 해라."
훈장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시험을 치러 한성(지금의 서울)으로 올라갔지만, 시험을 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벼슬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백 번 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이름을 버리다!

창암이 스물한 살의 청년이 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쁜 일본 놈들.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지?"
"그래, 나라의 힘을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지 못한 백성들부터 가르쳐야겠어."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치자, 너도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게 빼앗긴 한일합방이 일어났어요. 창암은

더 이상 가르칠 수만은 없었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을 기릅시다."
창암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힘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일본 헌병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감옥에서 매를 심하게 맞으면서도 꿋꿋이 견뎌냈답니다.
창암은 감옥에서 스스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 했어요. 이 때, 이름을 '구',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유는 가장 천한 계급인 백정에게도 애국심을 가지게 하자는 뜻이었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1919년 '3·1운동' 직후,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로 갔어요. 열심히 일한 김구는 마침내 임시정부의 국무령(현재의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김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이 일본군 대장에게 도시락 폭탄을 터뜨린 윤봉길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윤봉길의 이 외침을 끝으로 일본 헌병에게 잡혀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구는 일본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광복군을 기르는 학교를 세우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썼답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루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자, 일본이 무릎을 꿇었지요.
"대한 독립 만세!"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온 거리로 뛰어 나왔어요.
하지만, 김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미국의 도움이 아닌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허리부분에 38도선을 긋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기로 한 거예요.
김구는 "남과 북에 따로 따로 나를 세우면 큰일 납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하나의 온전한 자유 독립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잠들다!

"탕!, 탕!, 탕!, 탕!"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에 김구가 쓰러지며,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결국 막지 못했어요. 장례식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김구는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취형>

이순신

군인
해군장교

일생

- **조선 중기의 명장이며, 시호는 충무(忠武)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인 1591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거북선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군사력 확충에 힘썼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뛰어난 지도력과 작전으로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물리쳤으나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무과 시험에 4년 만에 합격하다.

이순신은 1545년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던 이순신은 곧잘 골목대장을 맡았어요. 양반의 행차에도 전투중이라며,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당찬 녀석이었죠.

22세가 되던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술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무과에 응시한 것은 28세 되던 해였는데, 이순신은 그만 실수로 말에서 떨어져졌어요. 이순신은 당황하지 않고, 부러진 다리를 꽁꽁 싸맨 후 다시 말에 올랐어요.

“와 대단하네, 하지만 시험에 떨어지겠는걸.”

결국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로부터 4년 후 초지를 굽히지 않고 무술공부에 정진한 끝에 드디어 무과에 합격했어요.

평화로운 세상, 미리 전쟁을 준비하다!

그 무렵,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유성룡의 추천으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어요. 그 즈음 왜(일본)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져 온 나라가 술렁거렸지만, 오랫동안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져 긴장이 풀어지고, 자만심에 빠진 관리들은 그 소문을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어요.

“배를 고치고, 화살과 대포를 만드시오!” 이순신은 철갑선인 거북선은 더 만들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어요.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하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왜군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죽이고, 곡식과 재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마을을 불태워 온통 잿더미로 만들었지요. 이순신이 처음으로 왜적선과 싸움을 벌인 곳은 옥포에서였어요.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으로부터 부산의 함락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즉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24척의 배와 병사들을 이끌고, 왜선을 급습하여 첫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전투를 '옥포해전'이라 부른답니다.

학익진을 펼쳐라!

도요토미는 "연합 함대를 총출동 시켜서 이순신의 함대를 한 번에 박살을 내어라!"

이에 이순신 장군은 또다시 빈틈없는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하여 함몰시킨다!"

"공격하라. 학익진을 펼쳐 놈들을 포위하라. 단 한 척의 배도 남김없이 침몰시켜라!"

이 '학익진'은 학이 날개를 활짝 편 모양으로 진을 치는 것이었어요. 양쪽 날개처럼 자리 잡은 함대는 왜선을 순식간에 포위하였고, 거북선이 중앙에서 기운차게 돌격하였어요. 왜선들은 조선 수군의 전투 작전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이에 왜선의 73척 중 10여척은 겁이 나서 도망하였고, 59척은 바다에 가라앉거나 불타버렸어요. 왜군의 전사자는 무려 9천여 명이나 되었답니다. 1592년 7월의 이 바다 싸움을 '한산도 대첩'이라 부른답니다. 그 후 이순신은 왜적이 진을 펴고 있던 부산을 기습 공격하여 왜선 1백여 척을 침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조선의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한편, 명과 일본의 강화 회의로 한동안 전쟁은 잠잠하였는데, 1597년 왜군이 다시 조선에 침입을 해왔어요(정유재란). 그런데 이순신은 왜구의 계략과 평소 그를 시기하던 원균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없는 틈을 타서 조선 함대를 거의 전멸시키고 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전라도 해안을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삼도 수군통제사에 오른 원균이 왜군에게 패해 군사와 함선을 모두 잃자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통제사에 임명하였답니다. 그때 조선 수군은 군사 120명에 함선은 12척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선조는 "바다를 버리고, 육지에서 싸우시오!" 말했어요.

그러나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옵니다."라며 출전했어요.

곧바로 닥쳐온 '명랑해전'에서 133척의 왜군 함대 가운데 31척을 쳐부수었어요. 다시 바다를 장악한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와 함께 노량진 앞바다에 모여 있는 왜군을 공격하였습니다. 뱃머리에 나가 싸움을 독려하던 이순신은 그만 적의 총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1598) '노량진 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하고 말았지만 조선 수군은 힘을 내어 싸워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었고, 이 싸움을 끝으로 임진왜란은 끝이 났습니다.

<진취형>

임상옥

상인

일생

조선 후기의 무역상인입니다. 1796년(정조 20)부터 상업을 시작, 1810년(순조 10) 이조판서 박종경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여 한국 최초로 국경지대에서 인삼무역권을 독점, 천재적인 상업수완을 발휘하였습니다.

1821년 변무사를 수행, 청나라에 갔을 때는 베이징 상인의 불매동맹을 교묘하게 깨뜨리고 원가의 수십 배에 팔아 막대한 재화를 벌었습니다.

그 재화로 기민 및 수재민을 구제한 공으로 1832년(순조 32) 곽산군수, 1835년 구성부사에 발탁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빚을 갚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다!

임상옥은 1779년(정조 3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집안은 4대째 상인으로 아버지는 사신을 따라 중국 북경을 왕래하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웠답니다.

그런데 임상옥은 28살 때 엄청난 빚을 떠안았어요. 아버지가 수천금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임상옥을 상복을 입은 상주의 몸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청나라로 장사를 떠났어요.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답니다.

기회가 찾아오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옥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1810년(순조 10년) 정부로부터 의주의 다섯 상인과 함께 청나라에 인삼을 파는 권리를 얻은 것이에요. 따라서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청나라에 인삼을 가져다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청나라 상인을 이기다!

임상옥은 청나라 상인들에게 인삼 값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질 좋은 조선의 인삼을 너무 싸게 사기 때문이었죠. 인삼 한 근에 25냥을 40냥을 받겠다고 했어요.

“너무 비싸지 않소? 그냥 예전대로 25냥에 주시오.”

“그렇게는 못 팔겠소. 최상품 인삼을 가져왔다고 하지 않았소.”

임상옥이 거절을 하자 청나라 상인들은 단합하여 모두 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가 계속 버틴다면 임상옥도 헐값에 인삼을 팔지 않을 수 없겠지."
조선 상인들은 사신들이 돌아갈 때 함께 북경을 떠나야 했어요. 북경을 떠날 날짜가 가까워오는데 인삼 한 뿌리 팔지 못하자 조선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도로 가져갈 수는 없잖소. 값을 낮추어서라도 인삼을 팝시다."
그러나 임상옥은 생각이 있었어요. 청나라 상인들도 인삼을 사려고 빚까지 얻었으니 인삼을 사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조선 사신이 떠나야 할 날이 왔어요.
"너희들은 창고에서 인삼 꾸러미를 모두 꺼내어 마당에 쌓아 놓아라!"
그러자 임상옥은 인삼 더미에 불을 붙여 태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시오? 이 귀한 인삼들을 왜 태워 버린단 말이시오!"
"귀한 인삼을 다들 몰라보니 태워 없애야지요."
"진정하시오. 인삼은 모두 살 테니 제발 불을 끄시오. 값은 원하는 대로 주겠소."
결국, 임상옥은 큰 배짱을 부려 열 배나 비싸게 인삼을 팔 수 있었답니다.

백성을 위해 돈을 쓰다!

엄청난 많은 이익을 남긴 임상옥은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간의 사정을 알려드렸어요.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큰돈을 벌어 갑부가 되었으니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라."
어머니의 이 말을 임상옥은 잊지 않았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다리를 놓았으며, 산성 수비에 쓰라고 1000석의 쌀을 내놓았어요. 또한 나라에 흉년이 들 때마다 창고 문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곡식을 나눠주었어요. 임상옥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끝이 없었답니다.

관직에 오르다!

임상옥에 대한 소문은 순조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1832년 그는 곽산 군수가 되었어요. 군수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어요. 보릿고개 때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농사 기술도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일어났어요. 2천세대의 집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은 사람이 16명에 수재민이 수천 명에 이르렀어요.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고 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옷과 생활필수품을 구해 주었어요.
이 일로 임상옥은 곽산 군수보다 높은 벼슬인 구성 부사에 올랐답니다.
그러나, 구성 부사는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천한 상민을 부사에 임명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임상옥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가 올라가자 임상옥은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었어요.
그 뒤 임상옥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면서 시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어요.
1885년 5월 29일, 77세의 일기로 임상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진취형>

장보고

국제무역상
군인

일생

- **장보고는 신라의 무장으로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 **840년(문성왕 2)에는 일본에 무역사절을, 당나라에 견당매물사를 보내어 삼각무역을 펼쳤습니다.**
- **청해진대사가 되어 신라의 바다를 지켜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방비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당나라의 장군이 되다!

지금의 전남 완도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장보고는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아서 '궁복'이라고 불렸어요. 장군이 되고 싶었던 궁복은 열심히 무예를 닦았으나, 신분이 미천하여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큰 실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당나라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장군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나라에 갈 것을 결심하였어요.

"내 비록 작은 섬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넓은 당나라에 꼭 들어가 대장부의 꿈을 마음껏 펼칠 거야."

그에게는 정년이라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궁복은 어릴 때의 굳은 결심대로 친구인 정년과 함께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열심히 무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여는 무술 대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이름을 떨쳤어요. 이 무렵에 궁복은 이름을 '장보고'로 바꾸었어요. 무술대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장보고는 무령군 소장이 되었답니다.

해상 무역을 꿈꾸다!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아 온 장보고는 바닷길을 통한 해상무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당나라나 신라 모두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여러 곳에서 도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못된 해적 놈들! 내가 속히 저 해적들을 물리쳐 바다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난 아주 큰 무역상이 될 거야."

그는 스스로 힘을 길러 바닷길을 지키고, 국제무역을 일으킬 꿈을 키웠어요.

청해진 대사가 되다!

828년에 당나라의 관직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흥덕왕을 찾아가 완동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여 해적을 물리치고, 무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은 장보고는 그 지방 사람들을 모아 1만여 명의 군대를 확보하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어요. 당나라의 해적선을 물리쳤으며, 심지어는 일본 쓰시마섬 앞바다까지 나아가 일본 해적선을 소탕하였답니다.

"드디어 신라의 골칫거리였던 당나라 해적과 일본 해적을 얼씬도 못하게 하였구나!"

장보고는 망루에 올라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이제 장보고의 명성은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일본까지 널리 퍼져 모두들 두려워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해적들이 물러나자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청해진 대사'라는 벼슬을 내렸답니다.

국제무역의 주인이 되다!

해적을 소탕하여 동지나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국제 무역을 주도해 나갔어요. 청해진이 점점 번창하여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는 또 중국에 '법화원'이란 절을 세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신라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의지처로 삼도록 했어요. 장보고는 그 자신이 보잘 것 없는 평민 출신이었으므로, 신라의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들을 널리 받아들여 그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답니다.

암살당하다!

어느덧 장보고는 강한 군대와 많은 배를 갖게 되었고, 무역을 통해 경제력을 키워 갔어요. 따라서 나라 정치에도 관계하게 되었어요. 836년 흥덕왕이 죽자 왕족끼리 왕위 다툼이 일어났어요. 장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신라 왕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청해진에 피난 와 있던 김우징을 왕(신무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하였어요. 하지만 왕위에 오른 신무왕은 1년 만에 병이나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문성왕으로 왕위에 올랐답니다.

어느 날 장보고는 문성왕을 찾아가 간청하였어요.

"마마, 신의 딸은 태자와 정혼한 사이이니, 결혼식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겠다는 약속이 대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장보고는 반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장보고는 군사들에게 출동 준비를 내렸어요.

"큰일 났다. 장차 장보고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불안에 찬 왕실은 결국 예전에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이라는 사람을 시켜 그를 죽이도록 하였어요. 염장은 장보고에게 투항한 척하다가, 장보고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장보고는 바다에서 꿈을 펼친 개척자이자 신라 사람들을 괴롭히던 해적들을 무찌른 애국자였어요. 또, 당나라와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장사를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무역상이었지요.

<진취형>

서희

외교관

일생

서희(徐熙, 942년 ~ 998년 8월 8일)는 고려 초의 문신, 군인, 외교관입니다.

과거 급제 후 원외랑을 거쳐 병관어사로 재직 중 거란(契丹)의 내침 때 서경(西京) 이북을 할양하고 강화하자는 안에 극력 반대, 자진해서 국서를 가지고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철수시켰다. 그 후 여진을 몰아내고 지금의 평북 일대의 국토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고난을 딛고

과거를 준비하다!

서희는 고려 왕조 초기인 942년, 이천의 서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서희의 아버지인 서필은 고려 조정에서 도필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죠. 도필은 직급은 높지 않았지만, 국왕이 내리는 문서를 작성하고 교정하는 일로, 무엇보다 국왕의 심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서희의 나이 열일곱에 아버지가 서희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개국 공신의 가문이나 높은 관직을 지낸 가문의 자손은 음서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거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될 거야. 준비하거라."

고려시대 광종은 자신과 함께 왕권을 일으켜 세울 인재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과거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위해 떠나다!

960년, 고려에서 두 번째로 과거가 실시되었어요. 서희는 합격하였어요. 관직에 있은지 10년후인 971년, 서희는 정4품인 내의성 시랑으로 승진했어요.

"자네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서, 우리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다지도록 하게."

이렇게 서희는 고려와 송나라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북방의 오랑캐는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였어요. 특히 반(反)거란 정책을 취해왔는데, 이유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었죠. 송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거란과 맞설 때에도 고려는 송나라를 지지하였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거란은 점점 송나라를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답니다.

거란이 쳐들어오다!

993년 거란의 장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에 침입하였어요.

"우리 거란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란은 천하를 통일하였다. 그러니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은 자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여라."

이러한 서신을 받은 고려는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얼마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희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야기 하였어요.

"그들이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을 빼앗으려는 것은 사실 우리 고려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강해 보인다고 해서, 서경 이북의 땅을 내어주고 화친을 맺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삼각산 이북의 땅도 역시 고구려의 옛 땅인데, 거란이 생떼를 쓴다면 그곳도 내 줄 것입니까?"

서희의 외교적 담판!

성종은 서희의 말을 듣고 끝까지 싸울 결심을 하였어요. 고려의 저항에 부딪치자 거란의 소손녕은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냈어요.

"누가 거란의 병영으로 들어가서 담판을 지어 보겠소?"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서희가 일어섰어요.

"능력은 없사오나 나라를 위해 소신이 다녀오겠습니다."

거란의 진영에 도착한 서희는 소손녕이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큰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양국의 대신이 만나는데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법도가 어디에 있는가."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에 오만한 소손녕도 서희에게 사과했어요.

"우리는 거란에 원한을 산 기억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오?"

"우리는 옛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땅은 우리 것이오. 그런데 고려가 점령하고 있소. 그리고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으면서 우리를 오랑캐라고 차별하고 있소. 그러니 고려가 우리에게 땅을 바치고 화친을 맺는다면 무사할 것이오."

서희는 소손녕의 말을 공박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소. 우리나라가 고구려 옛 땅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정한 것이오. 그래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더 많은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소. 또 우리는 거란을 무시한 적이 없소. 우리가 지금 그대 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은 것은 여진 때문이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땅을 되찾아 거기에 성을 쌓는다면 거란과의 왕래는 얼마든지 가능하오."

적진에 홀로 들어왔는데도 의연하게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희의 용기를 보고 소손녕은 감탄하였어요. 이에 소손녕은 서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란 황제에게 철군 승낙을 받아냈어요. 서희의 외교적 수완으로 거란과 고려와의 첫 전쟁은 손쉽게 종결되었어요. 고려에 침입하였던 거란은 오히려 땅만 물러 주고 간 셈이 되었답니다.

관 습 형

관습형 (Conventional)

◇ **주시경 :** 언어학자, 출판물편집자
◇ **황　희 :** 행정공무원
◇ **신채호 :** 역사학자, 고고학자
◇ **정몽주 :** 국무총리, 장관
◇ **규장각인물들 :** 사서, 출판물편집자

<관습형>

주시경

언어학자
출판물편집자

일생

- 1898년에 완성한《국어 문법》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모자라는 부분을 새로 펴냈습니다.
-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숙명 여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9개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습니다.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망명을 결심하고, 망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병을 얻어 1914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저서로는 국어문법, 월남망국사, 한문초습, 국문초학, 말의 소리 등이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글을 배우기 위해 양자로 들어가다!

주시경은 1876년 황해도 봉산군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웠던 그는 매우 총명하여, 한문을 잘 익혔어요. 또한 주시경은 한 번 품은 의문을 해결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도 있었어요.

13살이 되자 주시경의 큰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경이를 내게 주게! 내가 아들로 삼아 키우고 싶네.”

한양에서 장사를 하던 큰아버지는 몇 해 전 무서운 전염병으로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참기 힘들었지만, 한양에 가면 글을 배울 수 있는 생각만 되풀이 하며, 큰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글의 위대함을 알다!

주시경은 서울에서도 한문을 계속 배우는 한편,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말과 전혀 다른 한문만을 배우고 쓰는 걸까?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글도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쓰기 쉬운 한글은 여자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한문을 써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1894년 9월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인 영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 당시 조선은 옛날부터 배워온 학문과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신학문이 뒤섞여 있던 시대였답니다.

“알파벳이나 한글이나 둘 다 똑같은 소리글자잖아!”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다!

당시 일본, 청나라,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어요.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답니다. 하루는 서재필이 주시경을 찾아왔어요.

"백성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나라는 뺏기고 말걸세. 우리 힘을 합쳐 우리 글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어 보세!"

이때부터 주시경은 국어 음절의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순 한글로 된 신문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글 표기통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한글로 나라를 지키다!

그러던 중 1905년,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어요.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양의 나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것이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힘이 없는 조선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을사조약 이후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기 위하여 갖은 만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를 본 주시경은 생각했어요.

"큰일이야~. 이러다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어! 그렇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우리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완전하게 만들자!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절로 뭉칠 수가 있어. 말은 나라를 이루는 근본이야.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는 거야!"

주시경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국어 문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국어 연구에 힘써 '국어 문전 음학', '국어 문법' 등의 책을 발간하였답니다. 그와 동시에 한글을 전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어요.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임을 잊어버리고 일본인들에게 굴복하게 될 거야! 하루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전파시켜서, 한국인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해!"

주시경은 숙명여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다른 9개의 학교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에는 조선어 강습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데 전념하였답니다.

국어 운동의 선구자!

주시경은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한글의 보호와 발전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등의 제자를 길러내, 1922년에는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침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우리말 큰사전'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천하게 여기던 한글을 자랑스럽게 만든 주시경 덕분에 우리는 한문이 아닌 쉬운 한글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관습형>

황희

행정공무원

일생

- **1363년 개경(현재의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문과 급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판서, 재상 등을 지내며 맹사성 등과 함께 세종대왕을 잘 보필하였습니다.**
- **성균관학관으로 출사하여 조선에서 형조판서, 사헌부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부사에 이르렀습니다.**
-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세종은 그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임했습니다.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종대왕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의 한사람으로서 세종대왕 치세기간 중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농부로부터 말과 행동을 배우다!

황희는 20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26세에는 문과에 급제하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 때부터 성균관의 학관이 되었답니다. 황희는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였지만 조정의 요청과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 학관으로 돌아왔어요.

황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루는 들길을 걸어가다가 좀 떨어진 곳에서 소 두 마리를 부리며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지요. 황희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시오. 그 두 마리 소중에 어느 놈이 더 일을 잘 하오?”

그런데 농부가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저기 저 누렁이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지만 저쪽 검둥이는 일도 잘 안하고 꾀만 부리면서 말도 잘 안 들어요.”

황희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여보슈! 그런 걸 가르쳐주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 귀엣말을 할 건 뭐요?”

그러자 나이든 농부가 정색을 하며 대꾸했어요.

“어허, 모르시는 말씀! 그건 선비님이 아직 젊어서 모르고 하는 소리외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제 흉을 보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소?”

그 순간 황희는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 공부와 수양이 이처럼 밭가는 농부보다도 못하니 아직도 멀었구나. 가축조차도 제 흉을 보면 싫어하거늘 사람이야 오죽하랴. 내 앞으로 각별히 언행언동에 조심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황희는 더욱 과묵하고 침착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했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는 이후 태조와 태종의 신임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였어요. 그는 태종 시절에 이미 이조판서에 올라 있었지요. 그러나 태종은 맏아들인 양녕대군이 세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셋째 아들인 충녕 대군(세종대왕)으로 세자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자 황희는

"전하, 세자를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태종이 임금이 될 때, 왕자들이 서로 임금이 되려고 나라가 어지러웠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태종의 진노를 사서 유배되어 결국 태종이 물러날 때까지 등용되지 못하다가 세종 4년에야 유배가 풀려 관직에 되돌아오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청렴한 관료의 상징이 되다!

세종이 어느 날 백성의 복장을 하고 황희의 집에 암행감찰을 나갔어요. 찾아간 황희의 집은 초라한 단칸집에 담도 없었지요. 그러나 왕은 '이 정도를 가지고 청백리라 할 수 있을까?' 라며 의아해하다가 막상 거처하는 안방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재상의 방에는 장식품이라고는 그가 즐겨 보는 책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방바닥에는 거친 멍석이 깔려 있었죠.

한글을 반대하는 신하를 설득하라!

세종대왕이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바로 한글을 만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바로 오랫동안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써왔는데, 새로 한글을 만든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죠. 세종은 황희와 이 일을 의논했어요.

"전하, 전하께서 글자를 새로 만들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 백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옵니다. 소신이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사옵니다."

황희는 우리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사람씩 찾아가며 설득했어요. 황희가 나서서 설득을 하자, 자신의 처음 뜻을 굽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최만리를 비롯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었답니다.

20여 년간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다!

황희는 이제 나이가 되어서 사직을 세종에게 고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황희만큼 믿을 수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든일곱 사이 된 황희는 세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벼슬에서 물러난 황희는 책을 읽거나 낚시질을 하며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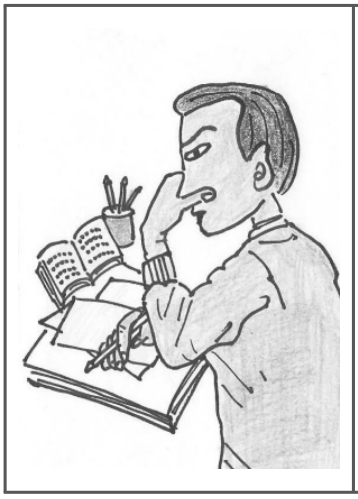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황희도 이를 애통해하다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났답니다.

<관습형>

신채호

역사학자
고고학자

일생



신채호(申采浩, 1880년 12월 8일 ~ 1936년 2월 21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입니다.

언론 계몽운동을 하다 망명,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나 견해차이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탈퇴, 국민대표자회의 소집과 무정부주의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했으며 사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인 〈조선상고사〉를 썼습니다.

고난을 딛고

어려운 형편에 글공부를 하다!

신채호는 1880년 12월 8일,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생활이 어려울 때라서 하루 세 끼를 다 먹을 수 없었어요. 좋은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채호는 아름다운 자연을 친구 삼아 배고픔도 잊고 힘차게 뛰어놀았어요.

채호가 일곱 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가족들은 의지할 곳을 찾아 고령 신씨들이 모여 사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낸 적이 있었던 채호의 할아버지는 이곳에 서당을 열었어요. 여덟 살 채호도 이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요. 곧 글공부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답니다.

실력만으로 성균관에 들어가다!

신채호는 쌀 살 돈이 없는 것도 어려웠지만, 큰 고통은 책 살 돈이 없는 것이었어요.

“채호야, 오늘은 친척 어른 댁에 함께 가자. 거기에 네가 읽을 만한 책이 많을 거다.”

할아버지는 손자 신채호의 영특함을 보고, 자신의 친구이자 먼 친척이며 구한말 관료였던 신기선에게 신채호를 소개해 주었고 신채호는 신기선의 서재에서 많은 서적을 읽으며 개화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1898년(19세)에는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였어요. 성균관은 당시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나 학식이 높은 청년들이 모이는 학교로 많은 인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채호는 책을 통해 발달된 서양의 사상과 문물에 눈을 뜨게 되었고, 독립 협회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로 인해 감옥에도 갇혔답니다.

언론인이 되어 우리나라 역사의 자긍심을 알리다!

1905년,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음날 사직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 가는데 혼자만 잘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때 한양에서 '황성신문'을 만들던 장지연이 찾아왔어요.

"우리 신문에 글을 써 주게. 논설 기자를 맡아달라는 말일세." 황성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시 상경하였어요. 11월 20일, 장지연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발표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신채호는 시일야방성대곡의 집필을 도왔으며, 장지연이 투옥되자 그를 대신해서 황성신문을 이끌었지만 폐간되었어요. 1907년에 박은식의 도움으로 베델이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초빙되었어요.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사람이 내는 신문이어서 일본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신채호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글을 계속 썼어요. 중국 수나라의 수십만 군사를 살수에서 물리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왜구를 물리친 고려의 최영 장군, 그리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앞세워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신채호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새로 쓰다!

신채호는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서, 나라의 역사만 제대로 서 있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일본은 우리 역사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식민 사관'이었어요. 신채호는 일본의 식민 사관에 맞섰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 운동을 하다 혹독한 추위, 굶주림으로 몸이 허약해졌어요. 상하이에서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한편, 김규식에게 영어를 배워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어려운 영어 책을 혼자 읽을 정도로 실력을 키웠답니다.

신채호는 틈만 나면 만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적을 실제로 보고 역사를 연구했어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옛 땅인 만주는 역사의 보물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신채호는 만주 지안(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자세히 살피며 생각했어요.

'만주의 유적을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

유적지를 답사하다 보니, 그동안 풀리지 않던 역사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갔습니다. 돈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답사를 할 수 없는 게 크나큰 아쉬움이었지요. 신채호는 이 답사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상고사〉를 썼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다!

신채호는 1928년 5월 이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이완에 갔다가 지룽 항에서 체포되고 말았어요. 신채호는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말했지요.

"우리 동포가 나라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신채호는 체포된 지 2년 만인 1930년에 10년 형을 선고받고 뤼순 감옥에 갇혀있다 독방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관습형>

정몽주

국무총리
장관

일생

- **정몽주(鄭夢周, 1338년 1월 13일 ~ 1392년 4월 26일)는 고려 말기의 문신·외교관이자, 정치가·교육자·유학자입니다.**
- **1360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출사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성균관대사성, 예의판서, 예문관제학, 수원군 등을 지내며, 명나라 외교관으로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 **역성혁명파의 조선건국에 반대하다가 1392년(공양왕 2년) 4월 이성계의 문병차 돌아가던 길에 개경 선죽교에서 이방원 일파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고난을 딛고

고려의 벼슬길에 오르다!

정몽주는 1337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정운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찍부터 학문을 배운 정몽주는 과거 시험을 보아 초시와 복시, 전시에서 모두 1등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장원을 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시험관들도 모두 놀라며 대단한 인재를 찾아냈다고 좋아했지요.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1376년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어요. 이어 정몽주는 끊임없이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들을 막기 위해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을 설득하고, 일본에 잡혀 있던 수백 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국하기도 했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끼다!

그 당시 고려는 원나라와 관계를 맺어 왔어요. 원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원나라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명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원나라와 명나라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지요. 두 나라가 모두 고려에 손을 뻗어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 했답니다.

“의리를 지켜서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원나라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명과 손을 잡으소서.”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정몽주가 나섰어요.

“원나라와 명나라의 싸움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원나라와는 지금처럼 의리를 지키고, 명나라와도 가깝게 지내면 될 것이옵니다.

이성계와 맞서다!

공양왕 4년, 왕세자 석이 명나라에 다녀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황주까지 마중을 나갔다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오랜만에 사냥 길에 나섰어요. 용맹함을 자랑하는 장수였지만 그만 실수로 고목나무에 말발굽이 걸려 바위 아래로 떨어지는 중상을 입었답니다. 평소 권신들에 의해 정권이 마음대로 농락당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렸던 정몽주는 이성계 일파가 득세하여 고려 정권이 지배당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이성계가 낙상하여 병환 중에 있으니 문병을 아니 할 수 없어 이성계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조영규를 데리고 그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정몽주는 문병을 마치고 이방원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하여가>와 <단심가>

술이 몇 번 오가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고려조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갔어요. 이방원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 시조 한 수를 읊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하여가)

이 시는 다 썩어 가는 고려 왕실만 붙잡기 위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칡넝쿨처럼 얽혀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시를 듣고 정몽주는 속뜻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일편 단심가를 화답으로 읊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

이는 다시 말해 고려를 배반하지 않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자 이방원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다!

결국 이방원은 아버지가 조선을 세우는데 걸림돌인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방원과 헤어진 정몽주는 선죽교 돌다리를 향하여 갔어요. 말이 선죽교에 다다랐을 때 정몽주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조금 전까지 이방원의 곁에 있던 조영구란 자였어요. 정몽주는 그를 보고 자신의 운명이 이미 다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말에서 내린 정몽주는 조영규의 손에든 철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다음 날 보니 정몽주가 쓰러진 자리에는 푸른 대나무나 높이 솟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교를 선죽교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정몽주는 비참히 생을 마감하였지만 고려시대 대표적 충신의 한명으로 마지막까지 고려왕조에 충성을 바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관습형>

규장각 인물들

사서
출판물편집자

일생

규장각(奎章閣)은 조선 후기의 왕실 학문 연구 기관이자 왕실 도서관입니다.

정조 임금은 여기에 비서실의 기능과 문한(文翰)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고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문운을 불러일으킨 중심기관으로 많은 책을 편찬했으며, 여기에는 실학자와 서얼(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 출신의 학자들도 채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왕실 도서관을 세우다!

창덕궁 후원의 중심에 서 있는 전각 규장각은 정조(1752~1800, 재위:1776~1800)시대 정치와 문화의 중흥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정조는 11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힘겹게 왕위에 올라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정조는 개혁정치를 통해 왕권의 강화를 추진하고 학문과 문화에 기반한 정치의 중흥을 꾀하였답니다.

정조는 즉위한 해인 1776년 3월에 규장각을 궐내에 창설할 것을 명하였어요. 송나라 제도에 따라 선왕들의 책과 어필 · 어제 등을 함께 봉안하기 위한 전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규장(奎章)'이란 말은, 바로 임금의 어필과 어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정조는 창덕궁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2층의 누각을 짓게 했답니다.

옛 법을 본받아 새것을 창출하다!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에서 출발을 했지만, 정조는 이곳을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화시키며, 역대의 도서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문 연구의 중심기관이자 정조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치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였어요.

정조는 당파나 신분에 구애 없이 젊고 참신한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규장각에 모아 개혁정치의 파트너로 삼았어요. 정약용을 비롯한 걸출한 학자들이 많이 양성되었는데, 특히 실력만 있다면 박제가·유득공·이덕무·서이수와 같은 서얼들을 적극 등용하였어요. 규장각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대 왕들의 글이나 책 등을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개혁정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답니다.

대표적인 인물 1 : 박제가

박제가는 1750년 서자(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서자는 차별받던 시절이었어요. 조선시대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서 서얼은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러한 사회적 천대와 멸시, 양반 제도의 계급적 모순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판하며 빈곤한 농민과 서민의 편에 항상 생각했어요.

1779년(정조 3년) 3월 정조는 규장각에 검서관직을 설치하고 특명으로 규장각검서관에 임명되었어요. 그 임무는 규장각의 관료들을 보좌해 서적을 검토하고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숙직을 자청하여 밤새 책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정조 임금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답니다.

규장각에서 그는 여기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마음껏 탐독하며,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 및 간행하였어요. 특히, 〈북학의〉는 청의 수도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을 정리해 저술한 책이랍니다.

대표적인 인물 2 : 유득공

유득공은 1748년 서자(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779년 정조 임금의 서얼허통령으로 서자도 출세의 길이 열리자, 글짓기와 해박한 지식이 있던 그는 규장각검서관에 임명되었어요. 규장각검서로 있으면서 궁중에 비장된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의 역사책을 읽을 기회가 많아졌어요.

"고려시대의 역사가들이 발해를 포함한 국사체계를 세우지 않아 우리 땅을 잃어버렸다."

"발해를 세운 대(大) 씨가 고구려인이고,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땅도 고구려 땅이었다." 라고 한탄했어요. 그는 최초로 발해사에 관심을 갖고, 발해사가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시대로 규정하며 〈발해고〉라는 책을 썼답니다.

대표적인 인물 3 : 이덕무

이덕무는 1741년 서자(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규장각검서관에 임명되었어요. 하지만 179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본래 체력이 약한데다가 규장각검서관의 고된 직문와 생활고를 겪다가 돌아가신 거죠. 이덕무는 살아생전에 청 왕조의 지배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중국은 중국일 따름이고, 조선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 중원만 모두 옳겠는가? 비록 도시와 시골의 구분이 있을지언정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중국을 다녀온 후 〈입연기〉란 책에 자신의 생각을 남겼답니다.

대표적인 인물 4 : 서이수

서이수는 1749년 서자(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서이수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와 함께 초대 규장각검서관이 되어 이들을 4검수라고 불렀어요. 후에 정조를 보필하다가 용인, 포천, 토산 등의 군수도 역임하였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알아보는 역사 속 인물들

역사 속 인물 탐구를 통한 나의 꿈길 찾기

기 획 정병문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박혜숙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김보상 / 경상남도교육청 **장 학 사**

집 필 김대언 / 창녕 남지초등학교 **교 감**

류주완 / 창원 성주초등학교 **교 사**

박상석 / 창녕 남지초등학교 **교 사**

박정수 / 창녕 장마초등학교 **교 사**

이보라 / 창원 용남초등학교 **교 사**

2015년 1월 발행

2015년 1월 인쇄

기획·인쇄 동아출판인쇄사 (055.246.7271)